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 of Hope
10% CASH ON HAND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8965호

Wednesday, March 13, 2024 A

미국·멕시코 가르는 ‘만리장성’ ... 매일 1만명이 넘는다

중영일보 현장 르포

국경마을 ‘노캘러스’ 가보니
출국 자유롭지만 입국 까다로워
장벽 위 철조망엔 옷가지·추모꽃
보호소엔 불법이민자들 수십명 줄



1. 애리조나주 남단 국경도시인 노캘러스의 장벽에 이곳을 넘어다 숨진 이들을 추모하는 꽃이 매달려 있다. 2. 노캘러스 장벽은 국경 3144km 중 이미 벽이 설치된 1049km 구간의 일부다. 3. 6일 투산의 한 보호시설에서 수단 출신의 불법이민자가 기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조셉리 기자

지난 4일 서남부 애리조나주의 주도 피닉스에서 차로 3시간 달려 도착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마을 ‘노캘러스’. 마을 남쪽엔 9m 높이의 철제 장벽이 국경을 따라 끝없이 이어졌다. 미국이 세운 이 장벽 안쪽은 애리조나주 노캘러스, 벽 너머는 멕시코 소노라주 ‘노캘레스’(스페인어 발음)다.

국경 봉쇄의 상징이 된 철제 장벽이 늘어선 멕시코 접경 마을에 미국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법 이민 문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로 굳어진 11월 미 대선에 최대 이슈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갤럽 여론 조사에서 ‘미국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을 묻는 질문에 미국인 28%가 이민 문제를 꼽았다. 지난

해 8월 조사에서 9%였던 답변 비율은 반년 만에 3배 이상 높아졌다. 이민에 대한 우려가 경제(12%)와 물가(11%) 문제를 앞섰다. 1992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자리잡은 ‘선거=경제

란 공식마저 뒤집을 만큼 뜨거운 쟁점이 됐다. 노캘러스에 세워진 장벽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3144km 중 이미 벽이 설치된 1049km 구간의 일부다. 트럼프의

구상처럼 나머지 구간에도 장벽을 세우면 중국 만리장성의 총연장 6300km 절반에 해당하는 ‘미국판 장성’이 완성된다.

노캘러스의 장벽 위엔 날카로운 철조망도 여러 겹 설치돼 있었다. 일부 철조망엔 벽을 넘어 걸린 사람이 남긴 옷가지가 매달려 있었다. 추락해 숨진 이를 추모하기 위해 둔 꽃다발도 볼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멕시코 국경을 넘어 불법 이민자는 3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에 1만 명 이상이 벽을 넘어 있다는 얘기도. 기자는 이날 순찰대원과 함께 국경 일대에서 대기했다. 기자가 있던 곳에선 불법 이민자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밤새 긴급 무전이 이어졌다.

트럼프 측은 선거 유세 중 상대적으로 관대한 국경 정책을 폈던 바이든 정부 들어 불법 입국이 폭증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때 한 해 40~50만 명 수준이던 멕시코를 통한 불법 월경 인원이 지난 한 해 247만여 명에 이르렀다. 상대적으로 관대한 국경 정책을 폈던 바이

든 대통령도 국경 통제 강화 방안이 담긴 행정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노캘러스 식당 앞에서 만난 호아킨 세라노는 “나도 30년 전 불법으로 저벽을 넘어 미국에 왔다”며 “지금은 합법 체류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이 대선 이슈로 부각된 데 대해 세라노는 “사람들은 그저 먹고살기 위해 장벽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불법 이민 증가세가 꺾였다”며 노캘러스를 포함한 4곳의 검문소를 통한 멕시코 통행을 재개했다. 통행이 재개된 노캘러스의 검문소엔 총을 든 군인이 배치돼 있었다. 하지만 멕시코로 가는 과정은 간단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조차 없이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었다.

반면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멕시코인들은 대부분 신분증 검사에 이어 X선 검색대에서 소지품 검사까지 받아야 했다. 동양인인 기자에게 “시민권자인가”라고 물은 뒤 운전면허증만 확인하고 입국을 허가했다.

투산·노캘러스=강태화 특파원
4면 ‘현장 르포’로 이어집니다

‘반미·실형’ 최악 부적격 논란, 비례대표제 회의론 커진다

논란의 전지에·정영이 사퇴했지만
“극단 정치인 국회 통로” 비판 여전

1963년 총선에서 ‘전국구 의원’이란 이름으로 도입돼 올해 61년이 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위성정당이란 꿈수예다 잇따른 부적격 후보로 비례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에서 시민사회 및 비례 후보로 내정됐던 전지에(1번)·정영이(17번) 두 후보가 12일 잇따라 사퇴했다. 과거 한·미 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인 반미 단체 ‘청년겨레하나’ 대표 이력과 사드배치 반대 시위 주도 사실 등이 드러나 민주당이 후보 교체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두 후보를 뽑은 연합정치시민회의 심사위원단은 한국진보연대나 겨레하나 등 친북 논



전지에



정영이

란 단체 출신이 절반을 넘겨 “친북 성향이 아니면 애초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여권 관계자)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연합에 참여한 진보당 후보 3인도 논란에 휩싸여 있다. 진보당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후신인 데다 후보들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거나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계설 등

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진보연합 몫의 용혜인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 소속으로 당선됐다. 새진보연합은 용 의원이 주도하는 당이다. 결국 ‘셀프 공천’으로 비례의원직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구호를 내걸고 사실상 민주당과 연대를 추진하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지난 11일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허진·김정재 기자
2면 ‘비례대표’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예기 물받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703.639.0882



10% Flat Dividend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SMART.SOLOMONUS.COM

여야, 시스템 공천 강조해놓고... 음주운전 전과 후보만 39명

4·10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경쟁적으로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구 후보에 5명 중 1명꼴로 전과자를 공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현재 양당 공천이 확정된 467명의 전과 기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예비후보 명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민주당 지역구 후보 224명(예비후보자 미등록 4명) 중 84명(37.5%)이 전과자였다. 이 중 31명은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소요죄) 외에 다른 전과가 없지만 이들을 빼고도 전과자 비율은 전체 민주당 공천자의 23.7%(53명)였다. 전과 4범으로 알려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직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안 해 통계에서 제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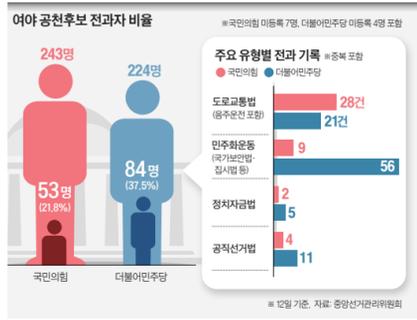
국민의힘도 지역구 후보 243명(미등록 7명) 중 53명(21.8%)이 전과자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신(新)4대'의 '4대 부적격 비리' 등에 공천 원천 배제를 선언했지만, 결과적으로 전과자 공천 비율은 민주당과 비슷했다. 국민의힘은 '당세가 약한 호남 지역에 전과가 여럿 있는 인사를 잇따라 공천했다'는 <한국중앙일보 3월 8일자 5면> 보도

심사 기준 높였지만 예외 허용 폭행·사기·배임에도 공천 받아 피고 송영길은 아예 옥중창당 논란 "국민이 준법 가치 느끼겠다" 비판

이후 전과자를 7명 더 공천했다. 폭행죄(1978년)·음주운전(2003년)으로 전과 2범인 친윤 핵심인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 등이다.

양당 모두 "공천 심사 기준 강화"를 외쳤지만, 실상은 각종 예외를 허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공관위는 올 1월 각각 '5대 혐오 범죄'(민주당), '과렵치 범죄'(국민의힘)라며 경쟁적으로 음주운전을 규탄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 전과자는 국민의힘 23명(전체의 9.5%), 민주당 16명(7.4%)이었다. 불이익을 주는 시기와 횟수를 따로 정해 이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각 당은 당세가 약한 지역에서 복수 전과자를 공천하는 경향을 보였다. 합치 출마를 꺼리는 가운데 '전국 정당' '전 지역 공천'을 위해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를 공천한 것이다. 여야 통틀어 최다



전과자(9범)인 양정무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보수당의 무덤으로 일컬어지는 전북 전주갑에 출마한다.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추가로 신청받은 끝에 전과 4범 광복군 예비후보를 공천했다.

민주당 후보 중에선 대구 달서갑에 공천한 권택홍 예비후보가 업무방해·선거법 위반 등 전과 8범으로 전과가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범정형이 중한 업무상 배임(경북 구미갑 김철호), 사기죄(경북 구미을 김현권) 전과자도 TK에 공천됐다.

이재목 한국외대 교수는 "같은 전과 1범 후보라도 내용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해 여러 번 처벌받았다면 국민이 과연 법이란 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과자 금배지'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 처리가 끝나지 않은 당 대표들의 제3지대 창당 난립"을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지난 3일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다. 조국혁신당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황운하의 원도 지난 8일 합류했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6일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도 논란거리다. 창당발기인 중 손해된 전 의원은 목포 땅 투기(명의신탁)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변희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미디어워치 대표와 정철승(경제추행치상) 변호사 등 다른 멤버들도 재판 중이다. **심새롬·장서윤 기자**

▶ 1번 '비례대표'에서 이어집니다 두 사람은 각각 지역 2년형(2심)과 3년형(1심)을 선고받고 상급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반면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구인난에 시달린다.

이미 530명의 신청을 받았지만 "필요한 인제라면 언제든 추가 공모가 가능하다"(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며 문을 열어왔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대부분"이란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실제 안상훈 전 사회수석, 천효정 전 부대변인 등 울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상당수 신청했다. 지역구 공천에서 떨어진 뒤 비례대표로 재수를 노리는 인사도 있다. 지난 1월 국민의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김은희 의원이 도전장을 내기도 했다.

비례대표는 국회의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새로운 전문가에게 기회를 주는 창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래 취지가 변질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조진만(정치학) 덕성여대 교수는 "각 당 지도부가 '정당 나팔수'나 '돌격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비례대표로 발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4년 전 총선 때 선거제가 준연동형이 되면서 위성정당이란 폄소 정당을 파생시켰다.

검증은 턱없이 허술해 문제적 인물들의 국회 입성 통로로 전락했다. 조국 대표 자녀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 받는 윤미향 의원 등이 바로 그런 사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1%도 안 되는 진보당이나 새진보연합은 이번 대선 3석가량의 국회 의석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이라는 제도의 빈틈을 활용해서다. 박동원 풀리컴 대표는 "현행 비례제는 선정적·국단적 발언을 하거나 팬덤이 있는 정치인의 진출 통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정치학) 교수는 "논란이 된 의원을 따지다 보면 상당수가 비례대표인 경우가 많다. 비례대표 무용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허진·김정재 기자**

"DMZ서 지뢰 밟으면 경품은 목발 ㅎㅎ" 민주 정봉주 과거 영상 삭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정봉주 후보가 과거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그런다고 해서 국민의 기억까지 삭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사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공격의 날을 세우더니 등잔 밑이 어두웠다"며 "서울 강북에 공천이 확정된 민주당 정봉주 후보의 막말과 욕설이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 후보는 2019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사태 관련 당에 반대 의견을 낸 당시 21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였던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 "너 한번 만나면 죽



여버려. 전국 40개 교도소 통틀인 조폭이 내 나와바리(구역)야"라는 등 욕설을 했다. 또 지난 2017년 자신의 유튜브에서 평창올림픽과 관련 북한 스키장 활용방안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DMZ에 밟긴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 지뢰 밟는 사람한테 목발 하나씩 주고'라며 패널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015년 목함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나온 발언으로의 심월 만한 상황기에 비뚤어진 국가관은 물론 우리 국군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연앤드마크 유튜브 채널 캡처

그러면서 "정 후보는 과거 유튜브 콘텐츠를 전부 삭제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기억에서까지 삭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 후보의 저급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은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획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금박해(조유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 멤버로 비명계 인사인 박 의원은 당의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로 득표율의 30% 감산 불이익을 받은 결국 고배를 마셨다.

정치권에선 이번 정 후보의 경선 승리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에서 비주류였던 금전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갑)에 도전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의 경선 패배 소식 직후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끝날 때 금태섭을 잘랐고 21대 국회가 끝날 때 박용진을 잘랐다"며 "사실 이런 일에 따르는 상처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하기 어렵다"고 위로를 전했다. **한지혜 기자**

워싱턴 날씨 (°F)

14일(목)	75~60	17일(일)	65~46
15일(금)	74~53	18일(월)	53~37
16일(토)	65~47	19일(화)	44~32

3월 13일(수) 71~51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1억 5천만 원 통합보험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5 in 1

Life Insurance
생명보험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장기간호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주택/비즈니스 용자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만나봤습니다

한미동맹USA재단 워싱턴 헨리 송 회장

“영화 ‘건국전쟁’, 차세대들 한국현대사 바로 배우는 계기 될 것”

‘이승만 건국 대통령 재평가 논쟁’을 부르며 한국에서 100만 관객 돌파한 김덕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워싱턴 지역에서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버지니아 타이슨스 코너 쇼피센터 내 AMC 16극장에서 상영된다. 이번 상영회는 한미동맹USA재단 워싱턴 지회 주최로 이승만 대통령 기념연구 교육재단(양동자 이사장), 원 코리아 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상영을 추진한 한미동맹USA재단 워싱턴 지회장 헨리 송 회장(원 코리아 네트워크 정부관계 담당자)이 본보를 찾았다.

송 회장은 우선 “영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연장 상영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 날인 16일 6시 상영회가 이미 매진된 상태로 영화에 대한 관심이 상상 이상



으로 높아 고무된 상태”라고 말했다. ‘건국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역정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수십년간 ‘부패한 독재자’라는 이미지만 점철되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알자”라는 재평가 운동이 지난해부터 거세지는 가운데, 워싱턴 주미대사관에 동상 건립도 추진 중이다. 이번 영화의 상당 부문도 이승만 대통령이 오랜 기간 살았던 워싱턴 DC와 관련됐다. 그런 까닭에 헨리 송 회장 역시 김덕영 감독을 도와 영화 속 그래픽 브레멘스키 교수와의 인터뷰를 직접 촬영하는 등 참여했다.

헨리 송 회장은 스스로 영화를 보고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알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던 점을 깨달았다”고 했다. 또한 송 회장에게 “영화를 보고서야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 돼야만 했는지 처음 알게됐다”는 한 인 2세를 포함하는 미국인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반면에 “왜 독재자를 미화하는 영화를 미국에서까지 상영하려 하느냐”, “이승만 때문에 통일이 되지 못한 사실을 아느냐”라고 소리치는 아우성도 들었다. 송 회장은 그런 그들에게 “일단 차분히 영화를 보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갖자고 이야기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와 함께 헨리 송 회장은 “오늘날 세계에서 빛나는 대한민국의 번영은,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자 선각자인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설계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뒷받침이 되어 왔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부 세력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왜곡하고 위대한 이미지를 지우려는 노력을 끈질기게

해왔는데 영화 ‘건국전쟁’은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근거한 진실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건국전쟁’ 상영은 미국 동포들과 자녀들에게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더불어 모국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기회로 올바른 대한민국의 역사관과 자긍심을 함께 느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내 비영리단체인 한미동맹 USA재단(이사장 김명혜)은 제작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미국 주요 도시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상영회 개최를 추진했다. 재단 측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의 초석이 되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미국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문의: 202-394-7005 박세용 기자

VA 16세 자녀 자동차보험 추가 시 연평균 82% 올라

19세에 50% 수준으로 낮아져

워싱턴지역에서 10대 자녀를 부모 자동차 보험에 추가할 경우 보험료가 연평균 2000달러 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이달 버지니아 기준으로 결혼한 커플의 16세 자녀를 포함시키면 보험료가 연평균 2419달러 상승해 5376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세 자녀는 2063달러가 추가돼 5011달러, 18세 자녀도 1825달러가 인상돼 4773달러를 기록했다. 19세에 이르면 1495달러 할증이 이뤄져 4443달러를 기록하게 된다. 16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없거나 1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 비해 82% 할증되고, 19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50% 할증이 이뤄지는 셈이다.



버지니아의 평균 부모 보험료는 2945달러였다. 자녀의 자동차 보험 가입, 갱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올라 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지만, 자녀를 개별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보다는 크게 절약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버지니아는 그나마 전국 평균으로 볼 때 할증률이 높지 않은 축에 속했다.

16세 자녀가 개별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가 전국 평균 8765달러에 달해 부모 보험에 포함시킬 때보다 5553달러 또는 172.9%가 더 비싸다. 17세 평균 6829달러, 18세 평균 6147달러로 부모 보험 추가에 비해 보험료가 각각 4020달러(143.1%), 3543달러(136.1%) 더 들게 된다. 19세 역시 평균 4650달러로 부모 보험에 포함했을 때보다 3042달러 또는 189.2%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포브스 선정 부모 보험에 16세 자녀 추가 시, 연간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보험사는 전국 평균 기준으로 4059달러인 이리(Erie)가 1위에 올랐다. 2위는 USAA로 4103달러지만 현역 군인, 재향군인 및 직계 가족만 가입할 수 있으며 3위는 4471달러인 가이코(Geico)가 차지했다.

이 밖에 내이션와이드(4502달러),

스테이트팜(5034달러), 트래블러스(5065달러), 프로그레시브(5088달러), 오토오너스(5412달러), 아메리칸패밀리(5663달러), 파머스(7349달러), 올스테이트(8296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우수 할인은 오토오너스와 스테이트팜이 각각 8%, 7%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3~5% 수준이다. 자녀가 학기 중 집에서 일정 거리(보통 100마일) 이상 떠나 재학생을 할 경우 적용되는 SAAS 할인은 가이코가 20%로 가장 많은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스테이트팜, 아메리칸패밀리가 각각 16%씩, 오토오너스 14%, USAA 10%, 내이션와이드 5% 등이며 기타 업체들도 1~4% 수준의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별로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한정되기 때문에 각 업체 웹사이트를 통해 줌코드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김윤미 기자



센터빌 메트로시티 은행 웰빙모아 옆으로 이전

메트로시티 은행 센터빌 지점이 지난 달 26일부로 기존 롯데마트(센터빌점) 내에서 같은 쇼핑센터 안의 웰빙모아 옆 건물로 이전해, 고객들에게 한층 더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피스/홈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2024년 성경 통독 집회

창립 21주년 58차 성경통독집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1:3)』

3박 4일 동안 신구약 성경을 완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핵심 관통 세미나 및 성경암송 강의도 있습니다.)

58차 성경 (신구약) 통독 집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읽습니다.)

- 일시: 5월 20일(월) 오전 10시 부터 23일(목) 오후 6시 까지
- 장소: 안나산 기도원 (301-874-2984) 7910 Peters Rd, Frederick, MD 21704



- 주 관: 미주성경통독선교회
- 문 의: 김양일 목사 / 703-597-7611
- 등 록: 안나산 기도원에 오셔서 등록하세요.
- 등록비: 200불 (3박 4일 숙식비)
- 준비물: 개역성경

*3박 4일 성경통독자에게 성경통독 수료증을 드립니다.
*등록시, 교재와 김양일 목사 설교 11집을 드립니다.

후원: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 하나님의말씀교회 · 국제성경연구원

엔비디아 '네모'도 저작권 피소

작가 "AI모델 학습 무단 이용" 오픈AI·MS도 NYT 소송 당해



NVIDIA

브디 나제미안, 중편 '라스트 나이트'의 스튜어트

오난으로, 지난 수년간 배상을 요구해왔다.

앞서 AI 플랫폼 챗GPT를 만든 오픈AI와 그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MS)도 지난해 말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스(NYT)로부터 제소된 바 있다.

한편, 엔비디아는 AI 붐으로 인해 주가가 2022년 말 이후 거의 600% 상승하면서 시가총액만 2조 2000억 달러에 달한다.

엔비디아는 동종 업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벤처 투자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투자 전략은 수익 이상의 것을 노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정보제공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해 3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했으며, 이는 전 해의 3배 이상이다. 투자 규모는 지난 1월 말 현재 15억 5000만 달러로, 전년도 3억 달러보다 대폭 증가했다.

AI, 질병 '학습' ... 현대판 불로초 나오나

빅테크들 바이오 AI 연구 한창 LG 치매·암 진단·치료 AI 개발 구글 "AI가 설계한 약 곧 출시"



전성 기형 등과 관련한 유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으로, 1929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2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생성 AI가 등장한 이후 생명공학과 신약 개발 분야에선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다. 생성 AI는 대규모 데이터 '학습(훈련)'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도출해내는 '추론'을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생성 AI 기술을 보유한 구글·MS·엔비디아·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AI 기반 생명공학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신약 개발에 뛰어든 상태다. 대형 제약사·연구소와 손잡고 신약 후보물질과 유전자 정보를 추출해 자사의 AI 모델에 학습시키는 방식이다.

신약 개발은 생성 AI 적용시 파급 효과가 가장 큰 분야로 꼽힌다. 특정 물질에 세포가 반응하는 것을 이미지로 학습한 AI가 나타나면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치료 시점도 당길 수 있다.

엔비디아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켄스 황은 최근 "AI를 활용한 생명공학 기술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과거로 돌아가 다시 전공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생물학을 고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G AI연구원은 지난해 7월 엑사원 2.0을 공개하며,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조해왔다. 화학·바이오·의료·금융 등 영역별로 공신력 있는 전문 데이터와 특히 자료를 엑사원 학습에 활용했다. 이번 책스랩과의 공동연구도 엑사원을 통해 암 진단과 치료 데이터를 결합해 해당 분야의 전문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검사 없이 병리 이미지만으로 암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 효과까지 예측하는 멀티모달(텍스트·이미지·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해하는 AI) 개발을 목표로 한다. AI가 개인별 유전체 정보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항암 치료 방안을 의사에게 제안하는 기능도 개발할 계획이다.



도산인창호 선생 서거 제86주기 추모식. 도산인창호 선생 서거 제86주기 추모식이 지난 9일 오후 5시 국민회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이사장 클라라 원), 미주도산인창호기념사업회(회장 광도원), LA홍사단(대표 이기욱)이 공동 주최했다.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제공]

“가주 공화당 한인 의원들, 트럼프 지지 선언 주저”

중도·아시아 지지 상실 우려

가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하원의원 11명 가운데 7명이 올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지만, 한인 의원 2명을 포함한 나머지 4명은 아직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은 폴리티코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물으려고 지난 6주간 최소 4차례 전화와 이메일로 의원 사무실과 선거 캠프를 접촉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스티븐 의원은 지난주 의회에서 폴리티코 기자가 접근하자 힐을 신은 채로 서



미셸 박 스틸 의원



영 김 의원

둘러 자리를 피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영 김 의원은 의회에서 이뤄진 폴리티코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여부에 대해 답을 피하다가 기자가 재차 질문하자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만 말했다.

폴리티코는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

과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에 있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수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조심스럽게 다루었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폭 지지할 경우 중도층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별하자니 공화당 내 지지 기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과 스틸 의원의 선거구는 민주당(블루)과 공화당(레드) 지지세가 비슷한 '퍼플(purple) 지역'으로 오렌지카운티 일부를 포함하는데 오렌지카운티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머스크 X "스마트TV용 앱 출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트위터)가 조만간 스마트 TV용 앱을 출시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X 계정에 "X의 긴 동영상용 스마트TV에서 직접 볼 수 있다"라는 한 이용자의 게시물에 "곧 온다"(coming soon)라고 짧게 답글을 달았다.

앞서 경제 매체 포춘은 X가 아마존과 삼성 스마트TV 이용자들을 위한 TV 앱을 내주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를 확인한 것이다.

X가 출시를 준비 중인 앱은 구글 유

튜브가 제공하는 TV 앱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머스크가 유튜브와 경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X를 "동영상 우선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터커 칼슨 전 폭스 해설자, 돈 레몬 전 CNN 앵커 등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 왔다. 또 머스크는 이용자들이 더 큰 화면으로 긴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머스크는 2022년 10월 당시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X를 메시지에서 P2P 결제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슈퍼 앱'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혀 왔다.

▶ 1면 '현장 르포'에서 이어집니다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불법 입국을 위해선 벽을 오르거나 허술한 면을 노리고 큰돈을 내고 브로커를 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국경 일대에선 냉장차에 숨어 입국을 시도하다 냉동장치가 고장 나 냉동고에서 집단 사망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이렇게 멕시코 국경을 넘어 사망한 사람들은 4274명에 달한다.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 중 일부는 노숙자 등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

하는 보호소를 찾아간다. 5일 새벽 5시 기자가 찾은 투산의 한 보호소에선 하루 10명으로 제한된 추가 입소 자격을 얻기 위해 수십 명이 줄을 서 있었다.

이날 정월 초과로 입소하지 못한 미국인 구스타보 헬라는 "불법 이민자 때문에 나처럼 도움이 절실한 미국인들이 박대당하고 있다"며 "멕시코뿐 아니라 세계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먼저 돕는 정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불법 이민자 때문에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빼앗긴다

고 여기는 미국인 비율이 늘고 있다. 보호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시민권자들 불법 이민자들 신분에서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근의 또 다른 보호시설에서 기자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내전을 피해 탈출한 뒤 멕시코를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 파리프(가명)를 만났다. 내전으로 부모를 잃은 그는 기자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주신해줄 수 없나"고 수차례 요청했다.

투산·노켈러스=강태화 특파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絡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 막스

Martindale-Hubbell
NOTABLE
Peer Rated for Strong Ethical Standards 2019

THE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Virginia Car Accident Claims

프로구단 재정지원·마리화나 판매 빅딜 무산

“VA 정치권 불쌍사나운 정쟁”

버지니아 정치권이 타협을 거부하고 극단적인 정쟁을 일삼아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 모두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를 중심으로 알렉산드리아에 아이스하키 및 농구 프로구단 전용체육관 건립을 위한 20억 달러 상당의 재정지원 허가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막아버렸다.

이 법안은 글렌 영킨 주지사가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삼는 등 큰 기대감을 드러내 바 있다.

하지만 강경파가 득세한 민주당 지도부는 공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조달



하더라도 추후에 구단이 연고지를 이전하거나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법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과일 개발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주택과 도로 인프라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킨 주지사는 민주당에 보복의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오락용 마리화나 소매판매 승인법안과 세부 시행 법안에 반대사를 분명히 했다. 영킨 주지사는 “민주당이 3만명 이상의 고용 효과와 12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체육관 법안을 거부했다”면서 “마리화나 판매 가게를 버지니아 골목길 곳곳에 설치하려는 법안을 나랑 상의하고 싶다고? 나는 결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킨 주지사는 심지어 “내 임기 중에 마리화나를 기대하지 마라”는 말까지 내놓았다.

마리화나 법안을 주도했던 폴 크리체크 하원의원(민주, 알렉산드리아)은 1970년대 유명 코메디 영화 ‘Up in Smoke’을 이용해 “모든게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 영화는 마리화나 흡연을 소재로 하고 있다.

마리화나 소매판매 허용법안 등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법안 조정과

정에 있는데, 주지사 서명을 위해 송부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의회 전문가들은 정치경험이 부족한 신출내기 주지사와 강경하기만 한 민주당 지도부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킨 주지사는 심지어 “내 임기 중에 마리화나를 기대하지 마라”는 말까지 내놓았다.

마리화나 법안을 주도했던 폴 크리체크 하원의원(민주, 알렉산드리아)은 1970년대 유명 코메디 영화 ‘Up in Smoke’을 이용해 “모든게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 영화는 마리화나 흡연을 소재로 하고 있다.

팁 20% 제한법 통과

의회 잘못으로 팁 상승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도

워싱턴DC 시의회가 식당 팁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10대 3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의회가 통과시킨 식당재생법안에는 업소의 팁 분배 비율과 사용처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도 만만찮아 최종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번 법안은 워싱턴DC 의회의 또다른 ‘입법 악순환’ 사례로 꼽힌다.

워싱턴DC 식당들은 작년초부터 팁 요구액수를 늘려왔는데, 의회가 2022년부터 팁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점차 인상해 2027년까지 일반 근로자의 최저시급까지 점증적으로 인상하는 법률 ‘이니셔티브 82’를 시행하면서 팁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의회가 팁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원인을 제공하고서 주민 불만이 늘어나자 또다시 팁 상한선 법안을 제정하는 등 입법 강박질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식당업주들이 근로자 임금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도 팁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전문가들은 요식업계의 자연스러운 경쟁으로 팁 소동이 가라앉으며, 시장에 대한 성급한 개입이 오히려 시장 교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소비자단체가 팁을 과도하게 요구한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승소 사례가 나오고 있다.

또한 팁을 아예 받지 않는 식당이 등장하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여러 마케팅이 등장했다.



김윤미 기자

말로는 ‘성소수자 대변’, 실제로는 ‘사기꾼’

워싱턴DC 경찰국이 비영리 성소수자 권익단체 대표를 돈세탁과 정부지원금 유용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당국에 따르면 용의자 루비 코라도(53·사진)는 중미 엘살바도르 출신의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자신이 설립한 단체 ‘카사 루비’가 펜데믹 기간 연방정부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자금을 불법 횡령하고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의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2022년 모국인 엘살바도르로 도

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정부지원금 130만달러 중 최소 15만달러를 엘살바도르의 금융계좌로 옮기는 등 돈세탁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국제청(IRS)에 보고하지 않았다.

용의자의 범죄 정황은 2022년 이미 드러나서 당국이 수사에 나서자, 용의자는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을 급하게 처분

하고 엘살바도르로 도주했다.

용의자는 지난 5일(화) 메릴랜드 로렐의 한 호텔에서 체포됐는데, 그가 미국에 다시 입국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카사 루비는 용의자의 도주 후 직원들의 임금 체불과 헬트 폐쇄 조치 후 결국 폐업 조치됐다.

용의자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은행 사기 혐의로 최대 30년형, 돈세탁 혐의로 최대 20년형, 정부지원금 유용 혐의로 최대 4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옥재 기자

4월 8일 개기일식 기대감...워싱턴 지역 89% 덮여

‘2017년에 이어 7년만에 다시 워싱턴 지역에 개기일식 장관이 펼쳐진다.

오는 4월 8일 개기 일식은 텍사스에서부터 시작해 중서부를 지나 인디애나폴리스, 클리블랜드, 버팔로, 뉴욕 북부, 버몬트, 메인, 캐나다의 번스워를 지나간다.

100%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약100마일의 띠 구간을 따라 시간당 1500마일씩 북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곳 100% 개기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4천만명에 이른다.

워싱턴지역은 이날 오후 2시4분부터 시작해 4시32분 태양의 89%가 달 그림자에 가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00% 개기일식과 부분일식의 크라이맥스 장관은 약 4분28초 동안 지속돼 암흑으로 뒤덮힌 하늘을 볼 수 있다.

개기일식은 태양과 지구 사이를 달이 지나가면서 태양을 완전히 가려 발생하는 천문현상이다.

최근 개기일식 지역을 대상으로 호텔 예약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육안 관찰의 경우 눈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보호장비를 갖추어야 한



다고 조언했다.

한편 과학계에서는 일식 기간 동안 동물의 이상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연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버지니아 텍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등 80여개

대학이 동물원 등에서 동물의 이상 행동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식 과정에서 동물들이 특이한 행동을 보여 과학계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17년 개기일식 당시 동물원의 갈라파고스거북이 단체로 짝짓기 행동에 들어가기도 했다. 긴팔원숭이는 괴성을 질렀으며 기린은 갑자기 사육장을 뛰어다니기도 했다.

이밖에도 조류와 꿀벌 등의 이상 행동이 목격돼 관련 연구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다.

김윤미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약출용자의 딸인 **마이클 장**

딸인과 함께 인생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이리츠)점
웨일리도래방

미락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 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바이든 특검 진술서, 12일 전문 공개돼

81세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적력 논란에 결정타를 날린 기밀문서 유출·불법보관 수사 특검의 조사 진술 전문이 12일 공개됐다.

로버트 허 특검이 하원 청문회에 앞서 의회에 제출한 진술 전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다섯 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을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출된 기밀 문서를 비서진이 어떤 경로로 사적 장소에 보관하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장남 보 바이든의 사망과 관련하여는 상당히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면서 수사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임 기간과 장남 사망 연도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아들 보 바이든 [AP 연합뉴스]

술해 파문을 일으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검 보고서 공개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솔직한 심경으로, 이게 그렇다고 무슨 상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격노한 바 있다.

조사에서 허 특검은 보 바이든의 사망 일시를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부통령 퇴임 직후 업무와 관련한 서류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추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시점부터 눈에 띄게 더듬

거리며 “잘 모르겠다. 이 시기에 아들이 파병됐고 또 죽어가고 있었다”면서 “보가 어느 달에 사망했지? 세상에 5월 30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악관 변호사가 “2015년”이라고 덧붙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가 2015년에 사망했나?”라고 반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2017년 11월이었나”고 했고, 익명의 남성이 “2016년”이라고 정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면 왜 내가 2017년 파일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고, 백악관 자문이 “집무실을 떠난 것이 2017년 1월이었다”고 답했다.

부통령 재임 시점과 관련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혼돈을 보이는 했지만 곧바로 정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날 진술에서 200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한 문건이 유출된 경우와 관련, “누군가 넣었을 것”이라며 “그게 2013년이었던, 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라고 물었지만 2017년이라는 측근의 도움에 바로 답변을 이어갔다.

둘째날 진술 중에도 2009년을 언급하며 “내가 당시에 부통령이었나”라고 물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9~2017년 부통령을 지냈고, 장남 보는 2015년에 사망했다.

미국 언론들은 아들의 사망 등 일부를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서 분명하고 상세한 기억력을 보여줬다는 평을 내렸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사안에 있어 매우 상세하고 명석한 기억력을 보였다”고 평했고,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은 보고서에 묘사된 만큼 기억력이 흐리지 않았고, 허 특검 역시 바이든 대통령 주장처럼 무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은 진술의 상당 부분을 특유의 농담으로 이어갔다”며 “일반적으로 조사를 받을 때 말을 짧게 하라는 조언을 받는 피고인들과 달리, 그는 상원 시절 장기인 필라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와 유사한 전략을 구사해 무의미한 발언을 길게 이어갔다. 전문만 본다면 웃음이 오가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다”고 보도했다.

오스카 수상 로다주·에마스톤 아시아 시상자 ‘패싱’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상을 받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사진 왼쪽)와 에마 스톤(오른쪽)이 시상자들 가운데 아시아계 배우만 무시하고 지나갔다는 ‘아시아 패싱’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웬하이머’에서 스트로스를 연기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다우니 주니어는 생애 첫 오스카를 품에 안기 위해 시상대로 올라섰으나 여러 시상자 가운데 지난해 남우조연상 수상자 키 호이 관에게는 눈인사도 없이 트로피만 가져갔다. ‘가여운 것들’에서 여자 프랑켄슈타인을 연기한 에마 스톤도 여우주연상에 호명된 후 시상대에 올랐으나 시상자 중 작년 여우주연상 수상자 양쯔충(양자경)과 별다른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스톤은 말레이시아 출신 양쯔충이 건네주려던 트로피를 받다 말고 옆에 있던 백인 동료 배우 제니퍼 로런스 쪽으로 향했다. 로런스는 양쯔충과 스톤의 손에 들



러 있던 트로피를 끌어와 스톤의 가슴에 안겨준 뒤 포옹했다. 이때 바로 옆에 있던 배우 샐리 필드가 그러려 안 된다는 듯이 로런스의 팔과 옷을 잡아끄는 모습도 포착됐다. 두 백인 스타의 이런 모습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아시아 무시’, ‘아시아 패싱’ ‘인종 차별’이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면서 논란이 됐다.

헝가리, “오르반은 독재 원해” 바이든에 발끈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독재를 추구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헝가리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씨야르트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자국 주재 미국 대사를 초청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씨야르트 장관은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행정부의 사고방식은 양국 관계에 큰 부담이 된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며 매우 심각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헝가리가 문제 삼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8일 그가 필라델피아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오르반 총리가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오르반 빅토르(좌) 헝가리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동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회동을 겨냥하며 “오르반은 민주주의가 소용없으며 독재를 바란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트럼프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잉사 내부 고발자, 주차장서 숨진 채 발견

미국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의 생산 공정 문제를 알린 내부 고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보잉 내부 고발자’ 존 바넷(62)이 지난 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소재 한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트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넷은 2017년 은퇴할 때까지 32년간 보잉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0년부터 주로 장거리 노선에

이용되는 여객기 ‘787 드림 라이너’를 만드는 노스 찰스턴 공장에서 품질 관리자로 일했다. 그는 이때 일을 하면서 제조를 서두르다 안전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바넷은 2019년 BBC와의 인터뷰에서 제조 지연 압박을 받는 근로자들이 생산 라인의 항공기에 의도적으로 표준 이하의 부품을 장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산소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기내 호흡 마스크 4개 중 1개가 비상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관리자들에게 자신의 우려를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잉 측은 그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항공국(FAA) 조사에



따르면 공장에서 최소 53개의 ‘부적합’ 부품이 분실됐으며, 보잉은 시정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산소통 문제에 대해서 보잉 측은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일부 산소통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항공기 장착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바넷은 은퇴한 후 회사를 상대로 기나긴 법적 소송에 착수했다. 내부 고발을 계기로 보잉으로부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경력 등이 폄하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주 보잉 측 변호인단의 심문을 받았으며, 사망 당일 추가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바넷의 변호사는 BBC에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말했다. 보잉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바넷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고 추도했다.

김은빈 기자

백성호 CPA, MBA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 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나토, 스웨덴 가입으로 발트해까지 대러시아 포위망 구축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서류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스웨덴은 핀란드에 이어 나토 32번째 회원국이 됐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 스웨덴 국기가 게양됐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약 200년 동안 스웨덴이 견지해 온 핵심 안보 정책인 '중립 노선'의 포기를 의미한다. 그만큼 역사적 사건이다.

스웨덴은 스위스·오스트리아 같은 영세중립국이 아니다. 영세중립국이란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다른 나라에 의해 독립과 영토 보존이 '조약에 의해' 보장된 국가를 의미한다. 스웨덴은 조약에 의해 중립이 보장된 국가가 아니다.

스웨덴의 중립은 스웨덴 스스로 천명한 중립 노선이다. 즉, 스웨덴은 군사동맹에 가담해 전시에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시 중립을 위한 평시 비동맹'을 원칙으로 하는 실리적인 안보 정책으로 그동안 중립노선을 표방했다. 전쟁이 나 냉전 시대 동서 이념 대립에서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두 차례 세계 대전의 참화를 피할 수 있었다.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된 스웨덴

스웨덴이 중립노선을 취한 가장 큰 배경은 강대국 사이에 놓인 지정학적 위치다. 그중에서도 러시아는 스웨덴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가장 위협적인 강대국이다. 스웨덴 영토인 고틀란드 섬은 러시아 발트해대 사령부가 있는 러시아의 역외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서 불과 350km 떨어진 지역이다.

러시아의 존재로 인한 스웨덴과 핀란드의 잠재적 안보 불안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현실적인 위협이 됐다. 두 나라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나토 군사동맹 가입이라는 확실한 '안보 보험'을 선택했다. 나토 가입 이전에도 스웨덴은 나토 회원국 군대와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등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나토 관계자들은 스웨덴을 '그림자 멤버(shadow member)'라 부를 정도였다. 스웨덴 국민도 전쟁이 발발하면 회원국이 아님에도 나토 병력이 스웨덴을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에 한 치의



1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본부 건물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웨덴 국기 게양식이 열리고 있다. 2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왼쪽)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11일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스웨덴 국기게양식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나토 32번째 회원국이 된 스웨덴의 합류를 기념하는 자리다. 지난해 4월 핀란드에 이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나토는 전략적 요충지인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포위하는 형세를 갖추게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위협 스웨덴 200여 년 중립노선 포기 러 위협에 맞서 '안보보험' 선택 32번째 나토 가입, 러 대응 주목

의심도 없을 정도였다. 따라서 나토에 가입해도 군사협력 관계에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지만,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 가입을 계기로 스웨덴은 유사시 나토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점은 분명 달라지는 것이다.

앞으로 관건은 과연 스웨덴이 자국 영토에 외국 군대 주둔이나 핵무기 배치까지 허용할지 여부다. 이는 스웨덴 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벌써 내부에서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스웨덴에 외국 군대 배치나 핵무기 배치가 이뤄지면 러시아엔 견디기 힘든 안보 위협이 될 것이다.

나토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영국·프랑스 중심으로 만든 군사 동맹체다. 나토는 1949년 창설 당시 12개 회원국으로 시작했으나 1991년 소련 붕괴를 계기로 소련의 옛 위성 국가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30개국으로 확대됐다. 나토의 지리적 범위도 점차 동진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 구도가 됐다. 2년 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명분 중 하나도 나토의 동진에 대한 대응이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발트해는 이제 '나토의 호수'가 됐다. 지중해에 이어 발트해까지 러시아를 둘러싸는 나토의 포위망이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토 회원국들, 국방비 증액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은 자체 국방비 증액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나토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회원국이 11개국 있었는데 올해는 18개국으로 늘었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최근 뮌헨안보회의에서 독일은 국방비를 GDP의 2%를 넘어 3~3.5%까지 증액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자체 핵무기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져온 결과는 나토의 러시아 포위망 확대와 유럽 국가들의 경각심 급증에 따른 국방비 증액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강하게 요구한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은 역설적이게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방으로 해결되는 모양새다. 결국 푸틴 대통령은 전후 불리한 손의 계산서를 손에 받아들게 될 것이다.

나토의 동진으로 러시아가 고립되는 것이 세계평화를 위해 바람직하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나토와 러시아가 불가침 협약을 맺어 지금의 경계선에서 더는 동진하지 않는 것이 세계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리펜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 최첨단 중소형 잠수함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방산 업체 사브(Saab)를 보유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유럽의 군사력 강화에 확실히 기여할 것이다. 스웨덴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중개하는 등 전통적으로 국제 분쟁 중재에 앞장서 온 국가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나토의 군사력 증강에 멈추지 않고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평화 중재 역할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미 동맹에다 자강력도 키워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일반적으로 모든 부담을 떠안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최소한 이번 전쟁의 직접적 당사자에 해당하는 유럽이 미국보다 더 많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런 목소리가 더 강해지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포기하고 미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대세가 된 지 오래다. 미국 우선주의는 한반도 상황에도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핵무기 사용 위협과 공갈을 일삼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혈맹인 미국과의 동맹 강화로 대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도 지혜롭게 대처할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 강화와 동시에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나름의 자강력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외교 안보 당국의 정교한 전략과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정규 전 주스웨덴 대사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QMB 또는 CCC) + 메디케어 이신 분들 상담환영! (버지니아 지역)

메디케어

무료 상담

1959년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FIRST SENIOR SERVICE LLC.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703-256-0300

AM 1310 매주 월 오후 1시 방송

메디케어 신청

어드밴티지 보험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메디케이드+메디케어



김남수 Licensed Broker in VA, MD, DC, GA, NJ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For accommodation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please call <703-256-0300>/TTY:711.

버지니아 (VA)

7535 Little River Tnpk., #325D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메릴랜드 (MD)

8600 Snowden River Parkway Ste 300 Columbia, MD 21045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CPA)

탈북민 지원 한국 선교사에 간첩혐의, 러시아의 인질 외교?

러 "체포 한국인 이름 백광순" 공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 염두
정보 하나씩 흘리며 압박 수위 높여
전쟁 도운 북에 보답했던 분석도

지난 1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나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형적인 '인질 외교'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러 간 군사기술 협력 강화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던 한-러 관계가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는 모양새다.

전날 두 달 만에 한국인 체포 사실을 공개한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12일(현지시간)엔 실명 공개 등 추가 보도

에 나섰다. 타스는 이날 수사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체포된 한국인의 이름이 백광순(Пэк Кван Сун)"이라며 "백씨가 자신을 작가로 소개하며 국가 기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백씨는 53세로 어린 자녀를 둔 기혼자"라며 "2020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무실을 둔 여행사를 운영했다"며 구체적인 신상까지 공개했다.

타스통신은 "백씨의 행사사건 자료가 '일급 기밀'로 분류됐다"면서도 법원의 비공개 심리에서 나온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정부와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는 러시아 관영 언론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정보를 조금씩 흘리며 서 외교적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지난해 3월 간첩 혐의로 체포한 후 1년 가까이 구급 중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4월 WSJ은 이 사건을 두고 "미국을 상대로(외교적)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씨는 현재 게르시코비치와 함께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미결수 구금시설인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체포·구금 후 두 달 만에 이 사실을 공개한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초 방한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아시아-태평양 담당 외무부 차관이 한국 고위당국자들을 두루 만나 한국의 의중을 파악한 후 러시아가 '행동'

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 전직 고위당국자는 "한-러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외교 스타일을 보면 이번 사건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와는 별도로 일각에선 백씨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10년 넘게 탈북민을 지원해온 선교사였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온 북한에 '반대급부'를 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타스는 "백씨는 독실한 신자라고 했으며 한국어 종교서적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의문을 위한 정보 소식통은 "백 선교사는 71년생으로 오랜 기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활동하며

북한 노동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붙잡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도 "간첩사건의 일환이라는 보도 내용을 볼 때 탈북민 구출과 관련된 사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인질 외교'든, 북한에 주는 '선물'이든, 아니면 둘 다의 목적이든 이번 사건은 미국 기자 게르시코비치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결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외교부 입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러 간의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교·이유정·박현주 기자

걸그룹은 연애도 허락 받나... 극성 팬덤 의존한 K팝 산업의 민낯

지난달 27일 4세대 인기 걸그룹인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와 배우 이재욱과의 열애 기사가 나왔다. 보도 후 양측 모두 이를 인정하자 일부 팬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SNS에서는 '카리나 블루(우울감)'를 호소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그룹의 리더인데 신중하지 못했다" "데뷔한 지 3년이 막 지났는데 벌써 열애설인가" 등 아쉬움의 반응이 올라왔다.

그런데 팬들의 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급기야 중국 팬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카리나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으로 '팬들을 배신했다'며 카리나의 사과를 요구하는 트러시위를 벌였다. 이어서 일부 한국 팬도 열애설 논란에 대한 당사자의 침묵을 질타하는 내용의 트러시위를 했다.

그러자 카리나는 지난 5일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K팝의 인지도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만큼 논란은 BBC와 CNN 등 외신에도 보도됐다. 동아시아권 팬덤 문화가 생경한 서구권 외신은 'K팝 스타는 연애도 허락 받아야 하는가'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논조로 이번 논란을 보도했다.

과거 1~3세대 아이돌 그룹에서도 심심찮게 열애설이 터져 나왔지만 '트러시위급'의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존중 의식이 높아진 지금 이 시점에 카리나 열애 보도가 이토록 격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당혹스럽다는 반응



카리나의 열애가 보도되자 여기에 실망한 팬들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앞에서 트러시위를 했고 카리나는 사과까지 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도 적지 않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카리나의 교제 소식에 허탈감을 보인 팬들이 내비치는 생각은 '시기상조'론이다. '한창 성장해야 할 걸그룹이 첫 정규 앨범 출시와 월드 투어를 앞두고 논란을 터뜨린 것'에 아쉬움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카리나가 소속된 에스파는 걸그룹 최다 초동(첫 주) 판매 기록(169만 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4세대 걸그룹 경쟁이 격화되면서 다른 그룹에 밀려날 것이라는 위기 의식이 작동했다. 중대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열애설 보도에 1주일 늦게 반응했다는 점도 팬들의 주된 질타 지점이었다.

여기서 덧붙일 수 있는 건 현재의 아이돌 팬덤 문화가 단순히 '자기 만족적 소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돌 팬들은 소속사 못지않게 음원 성적, 앨범 판매량, 해외 흥행 등의 '실적'에 민

아이돌의 성공을 나와 동일시 BBC·CNN '카리나 사과' 보도 가수 캐릭터와 사생활 분리해야

감하게 반응한다. 앨범을 수십~수백장씩 사고 각종 굿즈를 구매한다. 차트 순위를 올리기 위해 음원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신곡을 계속 스트리밍한다. 이번 열애 사건에 대한 팬들의 반발은 중요 시즌을 앞두고 스캔들을 일으킨 선수를 질타하는 스포츠 팬덤에 비견될 수 있다.

중앙일보 유료화서비스 '더중앙플러스'의 기획 시리즈인 '걸그룹, 여력을 홀리다'가 지적했듯, 아이돌 팬덤은 여성이 주도한 지 오래다. 과거 오빠 부대와 달리 이제 걸그룹도 주된 응원대의

상이다. 페미니즘의 성장과도 무관치 않다. 이들의 팬심에는 단순한 유사연애 감정을 넘어 응원하는 아이돌의 성공 신화를 소비하고 싶다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 블랙핑크가 보여주듯 K팝 그룹의 성공은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이들의 눈에 카리나의 열애 보도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감동적인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고자 하는 공동의 환상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비친 것이다. 상업적 성공과 자기계발에 대한 압박감이 만연한 한국 사회의 씁쓸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아이돌 팬덤이 갖는 경쟁 심리는 남성 팬들이 많은 확률형 아이템 게임(가챠 게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게이머들은 매출 순위라든지, 인기 캐릭터의 과금 실적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게임에서 내가 좋아하는 미소녀와 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게 필수이며, 이것이 게임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았다. '과금러' 역시 게임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소비자로 인식된다.

아이돌 산업에서도 동경하는 스타의 메시지를 1대1 채팅방으로 수신하고 답장을 보낼 수 있는 구독형 메시지 서비스가 확산됐다. 팬 사인회에 응모하기 위해 앨범을 대량 구매하기도 한다. 스타와 팬 간의 소통에 과급적 요소가 강화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찐팬'을 자부하는 팬덤 사이에는 일종의 '주주의식'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가

수도 누군가에게 연애 감정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유로운 상상의 영역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개별적 환상에 대한 몰입을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표면적으로 '성장'과 같은 '공동의 대의'를 지향한다는 식의 중립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일부 카리나-에스파 팬들이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그런 공식 설정의 붕괴, 게임에 비유하면 일종의 '캐릭터 붕괴'였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K팝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과몰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제한된 내수 시장 탓에 소수 열성 팬덤의 구매력에 의지하게 됐다. 그럼에도 사생활 논란으로 상처받는 '실존하는 개인'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거대한 문화산업이어도 '자유로운 개인'을 존중해야 더욱 풍요로운 결실을 볼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급속한 성장을 한 K팝 산업에 물음을 던진다. 게임이나 영화 프롤로그를 보면 '실제 일어난 일'에 영감을 얻었을 뿐 기본적으로 허구의 창작물'이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K팝 산업에서도 가수가 상징하는 캐릭터와 살아 숨 쉬는 개인을 분리하는 '메타 인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박가분작가

◆박가분=필명. 블로그 '밝은 서재'로 2010년대부터 이름을 알린 리버럴 성향 작가. 『일베의 사상』과 『혈오의 미러링』 『공정하지 않다』(공저) 등의 책을 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이제 이민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담 및 신분 변경

(Eng/Kor) (구원번호)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www.joylawgroup.com 버지니아 오피스 뉴욕 오피스

희스프링 아동가족상담소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능,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능,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703-259-5617, 410-241-2520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남양진주보다 더 매혹적인 일본산 인공핵진주!!

핵진주란, 대왕조개로 만든 핵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진주 에센스를 여러번 코팅한 인공 진주로서, 최고급 남양 진주의 광택을 지녔고, 가격이 천연 양식 진주에 비해 월등히 합리적입니다. 켈코의 일본산 인공핵진주 제품들을 만나보세요.



진주 컬러에 맞춘 다양한 디자인의 세계최고수준 한국세공 윙장식을고배 주얼그를 에서 만나보세요.

진주, 칼라스톤 세트류가 "와우~ 물반 고기반이네!"

Rings Heaven 애난데일과 엘리콧시티에서 펼치는 보석쇼

“무조건판다!” “무조건반값!”

새봄맞이 압도적 진주, 칼라스톤 1200세트 전격 출시!!

천연양식진주 / 인공프리미엄 핵진주 / 홍산호 / 각종 칼라스톤 /



MOISSANITE

대형사이즈 모이사나이트 3캐럿 및 5캐럿

"유일하게 다이아몬드를 능가하는 보석 모이사나이트"

모이사나이트는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경도, 보타나 광택, 분산율을 가지고 있으며 영원의 반짝이는 영광함을 잃지 않는 영원한 보석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 가격보다 최대 10분 1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여, 스마트하고 합리적인 쇼핑을 선호하는 신여성 고객님들께서 찾으시는 보석입니다.



전품목
한정판매!
매진임박!

반지천국에서 아쉽게 준비한 모이사나이트 특가전!
자긱자긱 볼경기! 모이사나이트반지로 기분 UP!



전품목
한정판매!
매진임박!

선물용으로 좋은 브로치 특가 세일

인공핵진주 브로치 무조건 \$100부터
칼라스톤 명품 브로치 무조건 \$350부터
천연바로크진주 브로치 \$350 ~ \$450

KJ 그룹 대부분 제품은 레이저공법과 수제품으로 서울 강남 공방에서 세공됩니다. 앞서가는 디자인 정교하고 세련된 세공으로 미주 전지역에서 모든 한인여성들 에게 인정 받는 KJ 그룹 대세일의 기회를 놓치지마세요.



버지니아 행사일정
일시: 2024년 3월 20일(수)-22일(금), 단 3일간
장소: 한인 커뮤니티 센터 2층 특별매장
6601 Little River 2nd fl Tpk Alexandria VA 22312

볼티모어 행사일정
일시: 2024년 3월 23일(토)-24일(일), 단 2일간
장소: JJ 골프 숍 특별매장 (서울폴대지 음식점 옆)
10045 Baltimore National Pike A12 Ellicott City MD 21042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합니다.

비만약 쓰면 항공주 뜨겠네 이쯤 돼야 투자 찌고수

1 승객 살빠면 항공 연료비 ↓ 식욕 억제, 식품사엔 불똥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을 이끄는 양대 산맥은 위고비와 일라이릴리(미국)의 '젠타'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두 제품이 2030년 비만 치료제 시장점유율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비만 치료 시장에 대한 기대가 감지된다. 지난달 14일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최초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등으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 'KODEX 글로벌 비만 치료제 TOP2'를 출시했다. 하필 밸런타인데이 출시로 화제(?)가 된 이 상품은 상장 뒤 7거래일 만에 개인 순매수 200억원을 넘어섰다. KB자산운용도 지난달 27일 'KBSTAR 글로벌 비만산업 TOP2' ETF를 출시했다.

실제 미국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제약산업 지수는 2021년 이후 16% 하락했지만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주가는 각각 243%, 340%씩 올랐다. 급기야 지난해 노보노디스크는 글로벌 명품 기업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를 제치고 유럽 시총 1위에 올랐고, 일라이릴리는 부동의 글로벌 제약 시총 1위 미국 존슨앤드존슨(J&J)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제약사가 됐다.

주가 상승의 동력은 탄탄한 매출이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 4분기 당뇨병·비만 관리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48% 증가한 613억 크로네(약 12조원)로 집계됐다. 출시 첫해인 2022년 1조원 가량 팔린 위고비는 1년 만에 313억 크로네(약 6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젠타는 지난해 11월 출시 후 두 달 만에 1억7500만 달러(약 2300억원)여가 팔렸다. 덕분에 일라이릴리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341억 달러(약 45조원)를 기록했다.

비만 치료제는 블록버스터 신약(연간 매출 1조원 이상의 의약품)으로 꼽힌다. 주요국 인구의 무려 3분의 1이 치료 대상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비만재단 등에 따르면 전 세계 비만 환자는 10억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세계 비만율은 1975년 이후 3배로 뛰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비만 인구는 전체의 42.7%다. 멕시코(36.9%), 호주(31.3%), 캐나다(24.3%), 영국(20.1%) 등도 비만율이 높은 편이다.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도 빠질 수 없다. 한국의 경우 비만율이 4.7%로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지만, 날씬해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몇 달 만에 14kg을 감량한 비결에 대해 "단식과 위고비 덕분"이라고 말했다. 체중 감량 전(왼쪽)과 후(오른쪽)의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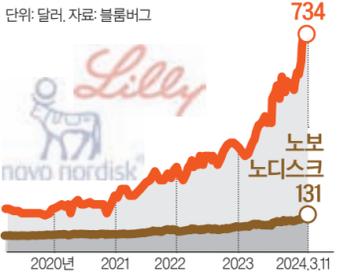
세계인 3명 중 1명 '똥똥'... 비대해지는 비만약 시장

"단식, 그리고 '위고비(Fasting and Wegovy).'" 2022년 10월 낱새진 몸매로 등장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다이어트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머스크가 언급한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가 개발한 주사형 비만 치료제다. 일주일에 한 번만 투약하면 1년 만에 체중의 17%를 감량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폼절대관'을 겪고 있다. 인간이 비만을 정복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일까?
배정원 기자

비만치료제 시장 전망치



제약사 주가



비만 치료제 출시 현황

	삭센다	위고비	젠타
회사	노보노디스크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성분	리라글루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	타르제피타이드
횟수	주 7회	주 1회	주 1회
감량	8%(56주)	17%(68주)	21%(72주)
비용	회당 7만~13만원	회당 15만~30만원	월 140만원

2 '비만약 톱2' ETF도 등장 8년 뒤 133조원 시장 예상

러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위고비가 판매되면 만만치 않은 수요가 예상된다. 골드만삭스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 버금가는 '황금의 땅'"이라며 연평균 50%씩 성장해 2032년 1000억 달러(약 133조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2차전지 산업(1210억 달러)보다 조금 작고, 모바일 게임 산업(900억 달러)보다 살짝 큰 규모다.

위고비와 젠타 등은 지금까지 등장한 다이어트 약 중 가장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비만은 탈모와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으로 풀 수 없는 난제로 여겨져 왔다. 지방흡입술, 위절제술 등 각종 수술이 등장했지만, 부작용이 크고 효과도 보장되지 않았다. 지난 70년간 무려 2만6000가지의 다이어트 방법이 유행하다 저물었다.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던 비만 치료제는 우연한 계기로 개발됐다. 노보노디스크가 2017년 출시한 삭센다는 원래 당뇨병 치료제였다. 그런데 이를 투약한 환자에게 체중 감량 효과가 발견돼 용량 변경 후 재출시됐다. 주요 성분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제제는 음식을 먹으면 분비되는 호르몬과 유사하게 만든 약물로, 식욕을 감소시키고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이후 출시한 위고비는 삭센다보다 체중 감량 효과(68주 투약 시 약 17%)가 두 배 가까이 향상됐고, 편의성도 개선됐

3 머스크도 효과 본 위고비 연 1000만원 들어도 품질

다. 삭센다는 1일 1회 투약해야 했지만 위고비는 1주일에 1회만 사용하면 된다. 젠타는 역시 72주 사용 시 체중의 21%를 감량했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비만 치료제는 이제 성장을 시작하는 단계다. 위고비는 미국·덴마크·노르웨이·독일·영국·아이슬란드·스위스·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이어 지난달 22일 일본에 출시됐다. 아홉 번째 진출 국이자 아시아 최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일본보다 한 달 늦은 지난해 4월 위고비를 허가했지만 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젠타의 경우 지난해 말 미국에서만 판매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지난해 주가 상승세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이제 '고점'이 아니냐는 질문도 나온다. 특히 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 삭센다의 특화가 만료돼 당장 올해부터 주요 제약사들이 복제약을 출시할 가능성이 크다. 위고비는 2032년 특화가 만료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알약(경구형) 치료제의 개발 여부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직접 몸을 찌르는 바늘을 꺼리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주사형 치료제는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 먹는 경구형 비만 치료제가 나온다면,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4 일라이릴리, 제약주 1위로 알약 나오면 '게임 체인저'

보고 있다. 노보노디스크는 다음 달 경구형 치료제 임상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도 하루 두 번 먹는 알약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제2의 노보노디스크'를 선점하는 것도 방법이다. 독일 투자은행 베렌베르크는 게레스하이머(독일), 사토리우스(독일), 스칸그룹(스위스), 산도스그룹(스위스) 등 4곳을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꼽았다. 이 회사들은 위고비와 비슷한 계열의 복제약을 출시할 가능성이 크다. 베렌베르크는 이들 제약사가 앞으로 20~44%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이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업체로 꼽힌다. LG화학·유한양행·대웅제약 등도 비만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위고비 등장 이후 스위스 식품회사 네슬레 주가는 23%가량 하락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조사에 따르면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는 가정의 음식물 섭취는 6~9% 감소했다. 모건스탠리는 "스낵 기업 등은 비만치료 약물 사용 증가로 가장 큰 실적 악화 위험에 처했다"며 "2035년까지 소비가 최대 3%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의 수혜주로는 항공사가 꼽힌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승객 체중이 평균 10파운드(4.5kg) 감소할 경우 항공 연료비를 연간 8000만 달러(약 1066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김영선
연방세무사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료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I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1호 공약 '한동훈 특검'... 조국당, 이재명 민주당과 선명성 경쟁

“이재명 불안, 조국 키우자 심리도”
“확장성 한계, 지지율 점점 빠질 것”

현시점에서 돌풍까진 아니지만 바람 정도는 꽤 보인다.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 얘기가. 창당 일주일째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15% 안팎을 기록 중이다. 정치권에선 “10석 획득” 전망도 나온다.

특히 야권의 핵심 지역 기반인 호남, 핵심 세대 기반인 40대에서 기세가 매섭다. 4개 여론조사 업체(케이스탯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가 4~6일 실시한 NBS 정기조사에서 ‘만약 내일이 투표 일이라면 정당 비례 투표는 어느 정당

에 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호남 응답자의 22%는 조국혁신당을 꼽아 더불어민주당(29%)을 바짝 추격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40대(12%)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국 바람’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먼저 선명성을 기치로 내건 선거 전략이 주효했다는 해석이 있다. 조 대표는 12일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 첫 번째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공언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감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평범

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인적 구성의 코드는 ‘진문재인’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징역 3년형(1심)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 조용우 전 국정기록비서관, 정춘생 전 여성가족비서관, 배수진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이 입당했다.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인사들이다. 문재인 당 대표 시절 민주당에 입당했던 문용식 아프리카TV 창립자도 참여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비명횡사, 친명횡제’ 공천이 조국혁신당으로의 이탈 현상을 가속했다는 것이다. 『이기는 정치학』의 저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에서 이재명 대표에 실망한 친문·호남이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재명’으로 대선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시각이 더해진다. 익명을 원한 대학교수는 “이재명으로는 불안하니 조국을 키우자는 호남 특유의 전략적 투표 심리”라고 말했다. 호남은 2016년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당에 몰표를 줬지만, 이듬해 대선에선 안 전 대표가 아

닌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총선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최 소장은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 정당은 조국혁신당)’가 야권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민주당이 이득을 볼 수 있다”면서도 “창당 효과가 있는 만큼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디언의 골레』를 쓴 조귀동 칼럼니스트는 “조 대표가 부각될수록 중도층의 반발을 불러 총선이 다가올수록 지지율이 빠질 것”이라며 “확장성의 한계 때문에 민주당에도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영주 영등포갑(오른쪽), 박용찬 영등포을 후보(왼쪽)가 인사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류상영 서울 동작을 후보가 12일 서울 남성사계시장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혜훈, 하태경에 경선 승리 김형동·이용·한기호도 확정

국민의힘이 12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앉히고 윤재옥·나경원·안철수·원희룡 등 4명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4·10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 지도부 ‘투톱’인 한 위원장과 윤재옥(대구 달서) 원내대표 외에 나경원(서울 동작) 전 의원, 안철수(경기 성남분당) 의원, 원희룡(인천 계양)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중량급 인사를 배치했다. 한 위원장이 당의 간판으로 총선을 이끌면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선거에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특히 나는 주로 지역을 많이 다니며 시민들을 많이 뵈는 생각”이라며 “그렇기에 선거경험이 대단히 풍부한 베테랑분들 모두의 힘을 모아 국민의힘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선거운동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미·종북 논란’에 대한 “정책적 해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당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반미·종북,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 연합훈련 중지를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건

건지 궁금하다”며 “주한미군 철수 같은, 방위체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분을 비례 1번으로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 순번 1번 공천이 유력했던 전지에 전 서울과학기술대 총학생회장의 과거 반미 단체 활동 이력 등을 겨냥한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0개 지역의 경선 결과, ‘현역 강세’ 흐름이 이어졌다. 현역인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강대식(대구 동-군위)·김형동(경북 안동-예천)·이용(경기 하남) 의원이 승리하면서 4·10 총선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현역 중에선 부산 해운대갑에서 지역구를 옮긴 하태경 의원만 고배를 마셨다. 서울 중-성등을 결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이 하 의원을 꺾은 것이다. 다만 하 의원은 공천 발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3명 후보의 1차 경선에서 제가 46.01, 결선에선 50.87이 됐다. 이 전 의원은 1차 경선에서 29.71인데 결선에서는 여성 가점을 더해 51.58이 됐다”며 “확률적으로 믿기 어려운 수치다. 로데이터 공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정·이창훈 기자

송갑석·도종환까지 ‘비명횡사’ 박성준 생존, 지도부 전원 공천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을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가 12일 닷을 올리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 등 3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체제로 열린 첫 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의 민생경제 파탄, 민주주의 붕괴, 평화실종을 심판하는 일대 결전이고,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질 것이냐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판의 날에 국민께서 떨치고 일어나 심판을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해찬 전 대표도 “우리가 꼭 심판을 잘해서 국민이 받는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해내야 한다”며 “늘 진심할 마음을 가지고 아주 절실하게 이번만큼은 꼭 심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뛰어오신 거에서 이길 수 있다”며 정권 심판론에 힘을 보탤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우리가 심판론을 이야기하면 국민께서 알아서 해주지 않겠나” 하는 안일한 마음과 자제였다면 안 될 것”이라며 “지나치게 국민을 자극하거나 반감을 불러일으켜 선거 국면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편 7~8차 경선 결과, ‘자객 출마’한 친명계에 비명계 현역이 또 대거 탈락했다. 대표적 비명계인 송갑석(광주 서) 의원이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게 패했고, 도종환(충북 청주 흥덕) 의원은 친명계 이연희 민주당원 부원장에게 졌다. 경기 고양정에서는 비명계 이용우 의원이 김영환 전 경기도 의원에게 패했다. 당 대변인인 박성준(서울 중-성등) 의원은 정호준 전 의원을 꺾었다. 이로써 당 지도부, 주요 당직자 23명이 100% 공천됐다. 이 밖에 문규중(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손훈모(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전성(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후보와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이 공천을 확정했다.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에 들어갈 비례대표 후보 20명도 추려졌다. 백승아 민주당 연합 공동대표와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등 10명은 순번 20위 안에 배정된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지각=이재명 대표는 12일 선대위 출범식과 시간이 겹친 대장동 사건 오전 재판에 불참했다. 오후 1시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지각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 일정에 늦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용환·김정재·정진우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스프링 필드 타운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리스버그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PENDING		UNDER CONTRACT	COMING SOON	COMING SOON
\$670,000	\$785,000	\$800,000		
방4, 화3.5, 2 Assigned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한 집 지하 워크아웃	방5, 화3, Split Level 수리 많이 함 지하 Full Bath, Walk Out	방4, 화4.5, 차고2, 2007년산 굿로케이션, 2350 Sf 루프탑덱, 커다란 부엌	방5, 화5, 차고2 4835 Sf 2019년산	방3, 화3.5, 2 Assigned 편리한 교통 전체 리모델링함

여성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년 최고가로 팔아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FAIRFAX REALTY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2023 Return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교수까지 그만두면 우리 어떡하나”... 불안감 커진 환자들

(서울대병원)

환자·보호자들, 실제 시작할지 촉각
일부선 “죽으라는 거냐” 격앙
“정원 너무 많이 늘려” 정부 비판도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내원객이 접수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 곁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아침에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병원으로 왔어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뇌졸중 환자 박모(83)씨 말이다. 박씨는 “(집단사직으로) 혹시 진료가 미뤄지거나 취소될까 봐 처방전을 미리 타 놓으려고 왔다”며 “원래는 당일 처방이 됐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해서, 항의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약이 10개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처방을 못 받아) 큰일”이라고 우려했다.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총회를 열고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18일부터 집단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응급 및 중

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진료단을 구성해 필수요료를 지키겠다”면서도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단계적 진료 축소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튿날 서울대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은 교수들이 실제 시작할까 반신반의하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

했다. 80세 어머니의 간질환이 악화돼 응급실을 찾은 이모(53)씨는 “2차 병원에서 ‘환자 상태가 안 좋으니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왔다”며 “보호자 입장에서 의대 증원과 상관없이 일단 의료 공백이 생길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간담 환자인 최모(80)씨도 “아직 진료 일정을 조정하진 않았지만, 뉴스를 보고 ‘이런 큰 병원에서 교수님들이 그만두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했다. 과급진료를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은 김모(40)씨는 “오늘은 정형외과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거라 문제가 없었지만,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한다면 걱정”이라며 “의료계가 일종의 기득권을 이용해 무모하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공공병원인 보라매병원에 다니는 환자들도 비슷한 걱정을 쏟아냈다. 위암 절제술을 받은 뒤 추적검사를 받으러 왔다는 최형식(67)씨는 “교수님들까지 안 나와버리면 환자들은 어떡하느냐”며 “의사들이 증원에 반대하니까 (정책에) 문제가 있나 보다’ 싶다가도, 환자를 두고 나간다는 건 너무 억지스럽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들에게 ‘그냥 한

번 죽어봐라’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반문했다.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온 박모(67)씨도 “의사들도 어떤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겠지만, 환자 진료를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한 황달 증세를 보이는 70대 A씨는 “환자들이 야어떤 게 문제인지 잘 모르지만, 의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길 바랄 뿐”이라며 답답해했다. 그는 “어제 엑스레이를 찍고 담도암이 의심된다고 해서 입원하러 왔다”며 “증상이 심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정부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어머니 폐렴 치료를 기다리던 정만영(58)씨는 “(교수들이) 일단 정부와 대화를 해보고 대책을 안 내놓으면 시작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정원을 늘려도 순차적으로 늘려야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2000명을 한 번에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수현·문상혁 기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2일 정부에 의대 증원 속도 조절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이 시급하다”며 거절했다. ‘해외 전문기관에 연구를 맡기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재승(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해외의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이를 근거로 의사 증원 문제를 1년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규모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 해외 기관 등의 연구에서 일치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국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현재 반도체, 저출산, R&D 예산 삭감 등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많다”며 “의대 증원은 연구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될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긴급 총회를 열고 18일 집단사직

서울대 교수들 “증원문제, 해외 의뢰하자”... 정부 “의료개혁 시급” 거절

하겠다고 결의했는데, 이날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협의체 구성을 받아들이고 의대생과 전공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전원 복귀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시기를 1년 늦추면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다. 필수요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생각할 때 선택할 대안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수들이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면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진료유지 명령을 내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교수들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다, 안 한다”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정부, 교수에도 진료유지명령 검토 조규홍 복지장관, 전공의와 만나 “주80시간 근무개선 등 대화 나눠”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의대 교수들이 구체적 시한을 못 박으며 단체행동을 결의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선봉대 역할을 자처한 셈인데,

이를 두고 서울대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의대 A교수는 “소수를 제외하곤 집단행동에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다.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 직전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반면에 B교수는 “소수의견도 듣자’ ‘밤샘토론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표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실제 얼마나 사직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했다. C교수는 “서울대 의대면 가장 늦게 나서고 가장 빨리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꾸짖는 목소리도 같이 내야 하는데 아쉽다”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다른 대학도 서울대의 단체행동 결의를 따를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전국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제5차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백5’ 등 국내 상급 종합병원은 의사 인력 중 전공의 비율이 40%에 달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병원 운영에 직격탄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병원과 달리 세계적 병원인 미국 메이요 클리닉 로체스터 본원과 일본 도쿄대의학부 부속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10%에 그친다. 복지부는 병원이 확보해야 할 의사 인력을 따질 때,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50%)로 산정해 전문의 추가 고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1명을 대신하려면 전공의 2명을 고용해야 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또 이날 “조규홍 장관이 전날(11일) 전공의와 비공개로 만났다”고 밝혔다.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근무 여건과 열악한 수련 환경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수연·문상혁·남수현 기자

“전공의들이 (현장을) 벗어난 상황에 대해 교수들이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김충기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8일 공개된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 작성자 중 한 명이다. 8개 수련병원 소속 교수 16명이 실명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비판했다. 현재 온라인 연대서명을 받고 있는데 7000명

“80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치부... 전공의 이탈엔 교수들도 책임”

넘는 의사들이 동참의 뜻을 밝혔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문답.

-선언문은 어떻게 작성하게 됐나.
“혼자 한 건 아니고 같이 했다. 16명이 내용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갔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들을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세심하게 고쳤다.”
-정부의 필수요료 패키지(종합대책)를 어떻게 보나.

‘의료붕괴 시국선언’ 김충기 교수 “교수사회도 이런 상황에 당황”

“필수요료를 살리겠다는 이야기는 환영할 일인데,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비난하고 있다. 왜 이렇게 엇나가게 됐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2000명’을 무리하게 추진하

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전공의 이탈은 어떻게 보나.
“교수들 사이에 자기반성이 있다. 굉장한 큰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 (전공의들이) 80시간 이상 환자를 보는 것을 우리도 다 경험했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치부해 온 부분들이 있다.”
-국민의 시선을 어떻게 느끼나.

“교수사회가 이런 상황에 대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조금 더 사회와 잘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의료계에 대해 가지는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불친절부터 3분 진료까지 다양하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번 계기로 (국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바람직한 의료의 방향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남수현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정선화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윤 대통령, 종교지도자 만나 “의료개혁 힘 모아달라”

수석비서관회의선 강력대응 지시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오는 18일부터 집단시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지시를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현장 공백 장기화에 대해 “응급환

자 및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유지명령이나 업무개시 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이라며 “그럼에도 일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 잘 경청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

춘재에서 가진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도 의료 개혁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며 “의료 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 종교계 지도자는 “의료 개혁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지도자는 “우리(종교계)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용덕 천도교 교령 대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윤 대통령,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목사, 최중수 성균관장, 김정환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 이용훈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이날 종교 지도자 간담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세 번째로 열렸다. [사진 대통령실]

박목월의 발표 안된 시 166편 공개 “아버지가 뭐하러 했노 하실까 겁나”

(장남 박동규 교수)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뭐하러 했노?’ 그러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겁도 납니다.”

“나그네” “청로루” 등의 대표작을 남긴 박목월 시인(1915~78·사진)의 장남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85)는 부친이 남긴 미발표 시 166편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문학자인 박 교수는 부친이 남긴 노트 80권에 담긴 미발표 작품을 후배 학자들과 함께 추려 이날 공개했다. 박목월 시인 타계 46년 만이다.

박목월유작품발간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젠테이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수가 자택에 소장한 노트 62권과 경주 동리목월문학관에 보관된 18권의 노트에 담긴 미발표 시 290편 중 완성도가 높고 주제 의식이 기존과 다른 166편을 추려 공개했다.



발굴 작업은 박 교수의 제자인 우정권 단국대 교수의 궁극지에서 시작됐다. 우 교수는 “박 교수님 맥 한구석의 보자기에 싸인 노트에 대한 의문이 영원한 숙제처럼 남아 있었다. 지난해 4월 선생님께 보여 달라고 청했다”며 “미발표작임을 알고 그해 8월 동료 학자들과 발간위원회를 꾸려 6개월간 기존 출간작과 대조하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부친 사후 46년 만에 작품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박 교수는 “아버지가 발표를 원치 않은 작품도 있을 텐데 시인 전반의 생애를 보는 데 이 자료가 필요해 보이고, 학자들에게 평가받아 보자는

생각으로 공개하게 됐다”고 했다. 우 교수 외에 방민호 서울대 교수, 유성호 한양대 교수 등이 발간위에 참여했다.

박 교수는 “창작 노트들이 잘 보관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니 덕”이라며 “시인의 아내로서 이 노트들을 잘 보관해야겠다는 일념이셨다. 부친이 작고하신 뒤에도 20년 동안 장롱 밑에 잘 넣어두셨다”고 말했다. 고(故) 유익순 여사는 경주, 대구, 서울로 이사를 다니고 한국전쟁 때 피란을 겪으면서도 시인의 노트를 보따리에 싸고 다녔다.

미발표 시는 시인이 등단한 1930년대에서 타계한 1970년대 사이 쓰인 것으로 그의 작품 세계를 총망라한다. 1950년대의 제주를 소재로 한 시들, 1960년대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노래한 작품, 역사적 격동기였던 해방과 한국전쟁



박목월 시인의 옥필 시 노트를 들어 보이는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등에 대해 작고 직전까지 쓴 시편들이 포함됐다. 그 밖에도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거나 가족에 대한 사랑, 가장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노래한 시들이 두루 공개됐다. 우 교수는 “박목월 시인은 자연에 대한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시를 써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로 발굴된 작품 속에는 그간 찾아보기 어려웠던 한국전쟁의 참혹함이나 해방의 기쁨 등 시대상을 담은 작품, 현실 감각을 드러낸 작품이 많다”고 설명했다.

구두담이 소년의 모습을 그린 ‘슈산보이’가 대표적이다. ‘6·25때/엄마아빠가 다 돌아가신/슈산보이./길모퉁이의 구두를 닦는 슈산·보이./’(중략) 이 밤에 어디서 자나 슈산·보이/비가 오는 데, 잠자리나 마련 했을가. 슈산·보이/누구가 학교를 보내주는 분이 없을가. 슈산·보이/아아 눈이 동그랗게 아름다운 그애 슈산·보이/학교 길에 내일도 만날가 그애 슈산·보이.’

유성호 한양대 교수는 어눌하게 살아가는 시인 자신과 용설란을 동일시하며 타향살이의 쓸쓸함을 제시한 작품 ‘용설란’을 걸작으로 꼽았다. ‘파도 소리에 뜰이 흔들리는/그 뜰에 용설란/반쯤 달빛에 풀리고/반쯤 달빛에 빛나는 옥중한 잎새/’(중략) 어눌한 사투리로 가까스로 몸매를/빛어./안개에 반쯤 풀리고/안개에 반쯤 살아나는 용설란.’

발간위는 이번에 공개한 작품을 활용해 전집과 평전을 내고 시낭송회와 뮤지컬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지유 기자**



고(故) 김기범 소방교의 부친 김경수(오른쪽)씨와 정남구 대구소방본부장. [사진 대구소방본부]

“순직 소방관 아들 기억됐으면” 5억 기부한 아버지

고 김기범 소방교 부친 김경수씨

26년 전 소방관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5억원을 기탁해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다.

소방청은 12일 오전 대구 강북소방서에서 ‘소방영웅 김기범 장학기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고(故) 김기범 소방교는 1998년 10월 폭우가 쏟아지던 날 대구 금호강에서 여중생 3명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을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함께 출동했던 김현철 소방교, 이국희 소방위와 순직했다.

외아들을 잃은 김경수(80)씨는 70년 평생 과수원에서 일해 모은 돈을 기부하기로 했다. 김씨는 “아들이 소방관 시험에 합격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한평생을 그리워하며 살았고 아들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랐는데, 이렇게 아들 이름의 장학금이 마련돼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소방본부는 이날 김씨를 ‘대구시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했다. 김조일 소방청 차장, 정남구 대구소방본부장, 박현숙 소방가족희망나눔 대표, 손상웅 대한전물공경유족회 군위군지회장 등 60여 명이 기탁식에 참석했다.

소방가족희망나눔은 기탁금 5억원을 ‘소방영웅 김기범 장학기금’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와 군위군 전몰유족회 후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군위군은 김기범 소방사

출생지다.

정남구 대구소방본부장은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대구소방본부는 김기범 소방관의 뜨겁고 빛났던 숭고한 마음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조일 소방청 차장은 “같은 아픔을 겪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자녀들이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 내 주신 아버님의 숭고한 뜻에 감사드립니다”며 “김기범 소방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백경서 기자**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3% 복리인상

85세

\$406,309

25년후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Ex: 60세 남성 - Cash Indemnity 방식 (매월 은행 계좌로 정기환출 비용이 입금)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앤디킴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3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꼭,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페어팩스 콘도

방2 + 와2

\$41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 + 와3, 차고2

\$800,000

센터빌 타운홈

방3 + 와3.5
1,496 sqft, 1993년

\$535,000

센터빌 타운홈

방3 + 와3
1,360sqft, 1985년

\$500,000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배럴랜드 / 301-399-0140 D.C. / 301-399-0140

11350 Random Hills Rd., #870 6701 Democracy Blvd., #300 13001 I St, NW #400E

Fairfax, VA 22030 Bethesda, MD 20817 Washington DC 20005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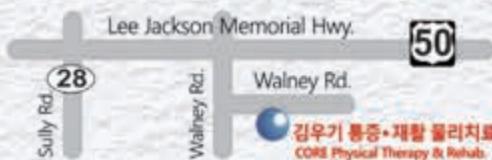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우리말 바꾸기

‘에요’와 ‘에요’ 구분법

다음 중 ‘에요’ 또는 ‘에요’와 관련해 바르지 않은 것은?

- ㉠ 내가 한 게 아니에요
- ㉡ 생각대로 잘될 거예요
- ㉢ 저 사람은 누구예요
- ㉣ 지금 어디예요

‘-에요’는 용언(동사·형용사)의 어간 또는 명사와 결합해 설명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말(종결어미)이다. 그러나 어떨 때는 ‘에요’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에요’가 되기도 해 헷갈린다.

㉠의 ‘아니에요’처럼 ‘-에요’가 용언(동사·형용사)의 어간과 결합할 경우에는 어간에 ‘에요’만 붙는다. 그러나 ‘-에요’가 명사와 결합할 경우 명사를 서술어로 만들 때 쓰이는 조사 ‘이’가 추가된다.

㉡의 ‘거예요’ 역시 이러한 예다. ‘가’는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가’가 명사이므로 ‘-에요’와 바로 결합하지 못하고 ‘이’가 추가돼 ‘가+이+에요’가 된다.

㉢ ‘누구예요’도 ‘누구’가 명사이므로 ‘누구+이+에요’가 되고 받침이 없는 명사이므로 자연스럽게 ‘에요’와 결합하면서 ‘누구예요’가 된 것이다.

㉣ ‘어디예요’ 역시 ‘어디’가 명사이므로 ‘어디+이+에요’ 형태가 되고 ‘에요’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면서 ‘어디예요’가 돼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열린광장

밤새 안녕하십니까?



장대한
UC리버사이드 교수
김영욱재미동포연구소장

그는 청년 시절보다 더 활발하게 여가와 취미 활동을 즐겼다. 50-60대들에게 신나게 노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다.

그가 즐겼던 취미 활동으로는 패러글라이딩, 경비행기 조종, 오토와 수상스키, 스키, 승마, 산악자전거, 세계일주 여행, 낚시, 서예, 사진, 글쓰기, 그리고 악기 배우기 등 정말 다양했다. 스포츠도 못 하는 것이 없었다.

대학 시절 밴드 활동을 하기도 했던 그는 지난해 연말 파티에서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어 공연하기도 했다.

은퇴 후 제주도로 이주해 서예와 한시 작업에 열중한 친구가 그에게 ‘라보’라는 호를 지어 주었다. ‘브라보’에서 ‘브’를 뺀 것이지만, 한자로는 벌릴, 그물 ‘라’와 지킬 ‘보’자를 쓴다. 그가 평소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고 해서 지어준 것인데 패러글라이딩할 때 제일 뒤에서 날개를 크게 펴고 위험

해 보이는 사람을 보호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한다.

친구는 떠나기 얼마 전 페이스북에 ‘설 연휴 끝날에 친구들과 북한산 다녀 왔습니다... 응달에는 아직도 뽀드득 거리는 하얀 눈 속을 마냥 걷고 싶는데, 아쉬운 겨울이 지나가는군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즐겁고 신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엇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리한 운동은 지양하고 걷기, 스트레칭, 골프 등으로 건강을 유지할 계획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활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고 베풀고, 공유하면서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필자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평안히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믿는다. 나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한다.

어쩌면 친구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다 갑자기 떠났으니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도 있다.

‘라보’ 친구 잘 가시게. 이제는 ‘밤새 안녕하십니까?’를 물어야 하는 나이가 된 듯하다.

J네트워크

여유로움과는 거리 먼 서머타임 논쟁



안착희
한국중앙일보
글로벌협력팀 팀장

미국 인구 3억 2000만 명이 원하던 원하지 않은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도입 후 수십 년 간 찬반 논쟁이 이어지자 미국 상원은 2022년 매년 두 차례나 시간을 조정하는 번거로움과 수면 시간 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 또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같은 위험 부담이 크다며 일광절약시간을 일 년 내내 시행하는 햇빛보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표준시간이 생체리듬에 더 적합하다는 의학적 의견과 일반 시민 반대가 만만치 않아 아직도 하원에서

계류 중이다.

연방의회 차원의 법 도입이 요원해지자 이제 주별로 표준시간 또는 일광절약시간으로 통일하자는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 차원에서 연중 일광절약시간을 택할 경우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기존 표준시간을 택하면 연방 차원의 승인 없이 주법이 확정된다.

이런 경우 현재도 4개의 각기 다른 표준시간대로 구별된 북미 대륙에 복잡한 주별 서머타임 도입 여부가 여러 혼선과 막중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물론 좀 귀찮아도 수면시간 60분 사라지는 게 대수냐고 반문하는 이도 많다.

여차피 가을이 오면 시계를 한 시간 뒤로 되돌려(fall back: 가을에는 시간을 뒤로 늦추라는 표현) 따뜻한 이불 속에서 좀 더 잘 수 있지 않느냐고 말이다.

한편으로 ‘조삼모사’의 논쟁처럼 보이지만, 결정의 순간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역시 분명해 보인다.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J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춘천서 출퇴근만 4시간... 그래도 병원 못 떠나는 이유는”

한국 소아외과의 살아있는 전설인 박귀원(75) 중앙대병원 소아외과 임상 석좌교수를 만난 날은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소식이 막 들려오던 지난달 16일이었다. 의사들은 “의료수가 조정 없는 정원 확대는 필수외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정부는 증원 규모·시기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 “집단행동 시 처벌하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결국 필수외로 전공의를 필두로 1만명 가까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다. 박 교수는 서울대병원 1호 ‘여성’ 외과 전문의이자 ‘소아외과’ 전임의 1호 출신이다. 35년 넘는 서울대병원 재직 동안 무려 3만 건 넘는 경이적인 수술 기록을 남긴 그는 평생 학회 아닌 해외여행은 한 번도 못 갈 만큼 쉼 없이 달려왔고, 정년퇴임과 함께 은퇴를 마음먹었다. 하지만 “소아외과 의사가 없다”는 말에 정년퇴임 한 달 만에 중앙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후임을 못 구해 10년째 병원을 지키고 있다. 필수외로의 산증인이게 의사의 인생에 대해 물었다.

인생의 결정적 장면, 하나 정년 한 달 만의 복귀

원치 않던 의대 입학, 여성을 아예 안 받던 외과 지원, 그 시절엔 개념도 생소했던 소아외과로의 방향 전환 등 인생의 모든 선택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4년 3월, 정년퇴임 한 달 만의 현역 복귀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수술방에서 소아 마취를 해주던 대학 1년 선배이자 당시 중앙대병원 의료원장이던 김성덕 남양주 현대병원 의료원장이 “여기 소아외과 의사가 없으니 몇 년만 봉사해라”기에 그냥 “알았습니다”하고 출근을 시작했다. 퇴직에 맞춰 집을 서울대병원 근처에서 춘천으로 옮겼기에 매일 기차·지하철을 갈아타며 출퇴근만 4시간 넘게 걸렸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다. 선배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어려웠지만, 소아외과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았기에 순순히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

인생의 결정적 장면, 둘 후배 잡는 대신 미룬 은퇴

솔직히 그땐 이럴 줄 몰랐다. 내심 길어야 3년을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갈수록 소아외과 전문의가 줄다 보니 10년이 훌쩍 흘렀다. 탈장부터 고난도의 신생아 선천성 기형 등이 가능한 대한소아외과학회 회원 수는 현재 50~60명. 고령이 많아 현장엔 20~30명만 있다. 대한민국 모든 병원에 소아외과 전임의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다. 오는 5월 군 제대하는 의사 1명이 서울대병원에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최근 의·정 갈등 여파로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소아과·외과도 안 하려는 마당에 더 어려운 소아외과는 더더욱 기피하기 때문이다. 소아외과 전문의는 외과 전공의(레지던트)를 마치고 추가로 2년의 전임의(펠로우)를 거쳐야 하기에 돈·시간을 더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이

렇게 더 공부해 전문의를 따도 진로가 마땅치 않다. 대형병원조차 적정 수만큼 채용하지 않고, 저출산 여파로 개업도 쉽지 않아서다. 그 결과 2013년 52명이던 소아외과 전문의 지원자 수는 2018년 2명, 2021년엔 단 1명도 없었다. 박 교수는 “외과 전공의 시절엔 흥미를 보이다가도 다들 현실의 벽 앞에서 결국 포기하더라”고 했다.

가령 레지던트 하나는 “이제 결혼하니 돈 벌어야 한다”며 전임의 대신 개업을 택했고, “꼭 소아외과 하겠다”던 다른 레지던트도 “(개업이 가능한) 대장·항문 분야를 하겠다”고 도망갔다. 결국 2027년 2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정년퇴직하는 교수가 후임으로 오기 전까지 만 78세에도 주 3회 외래에, 주 2회 수술을 박 교수 혼자 감당해야 한다.

그땐 다들 했는데 지금은 왜 안 할까. 그래도 젊은 의사들 맞듯 한다. 오히려 이해한다. 박 교수가 1979년 소아외과에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신생아 출생 수가 연 120만명이었는데, 지금은 20만명대다. 소아는 조직이 작고 연약한 데다 면역 등 모든 면에서 성인과 달라 난도가 훨씬 높다. 그런데도 수가는 예나 지금이나 원가 이하라 생명을 살리는 보람과 무관하게 병원에선 천덕꾸러기 신세로 눈치밥을 먹어야 한다. 업무 강도는 센데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니 후배에게 차마 권할 수 없다. 수가나 과잉 의료 소멸 등 전반적 의료 시스템 정비 없이 전체 의사 수만 늘려선 소아외과(필수외) 의사 확대도 이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이유다. “시스템을 바꾸려면 나라가 돈을 쓰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왜 무리수를 두는지...”

인생의 결정적 장면, 셋 “여자는 안 된다”던 외과에 입성

의대를 졸업하던 1972년엔 과를 먼저 정한 후 인턴을 했다. 퇴근하면 지쳐 누워만 있던 산부인과 개원의 엄마를 봐서인지 산부인과는 싫었다. 환자 차도가 바로 안 보이는 내과도 성질에 안 맞았고, 외과가 딱이었다. 그런데 남 말할 것 없이 서울의대 외과 교수였던 아버지(박길수)부터 결사반대였다. “누가 여자한테 배 내놓고 수술하겠느냐”는 그 시절 보수적인 여느 아버지다운 반응이었다. 아버지 강권에 못 이겨 원했던 법대 대신 세 언니와 똑같이 의대를 택했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다. “수술 맡기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외과를 하겠다”고 버텼다.

“알아서 하라”는 체념에 가까운 허락을 받은 후 위암의 세계적 권위자였던 고(故) 김진복 당시 의국장한테 승인 도장을 받으러 갔다. 외과 지원자 중 성격이 가장 우수한 편이었는데도 그는 2시간을 “하지 마라”고 설득했다. 통금이 있던 시절이라 수술이 늦게 끝나면 다들 야전 침대나 책상에 엎드려 잤는데, “여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였다. “당직 서겠다, 외과 하겠다”고 고집부리니 이번엔 “이화여대 병원에 가서 하라”고 했다. “서울의대 나와서 왜 이화여대 가느냐, 안 받아주면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 이미 합격했으니 미국 가겠다”고 맞섰다. 이렇게 설득 반, 협박 반으로 겨우



전설 박귀원 교수를 지난달 16일 중앙대병원에서 만났다. 그는 서울대병원 정년퇴임 후 후임이 없어 10년째 근무 중이다. 김경록 기자

도장을 받았다. 여자라 당직실엔 못 들어갔지만 간호사실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기어이 똑같이 당직을 섰다. 일복은 넘쳤다. 당시 서울대병원에선 외과 전공의가 되려면 무의촌 진료 경력이 필요해 막 문을 연 춘천 도립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술 먹어 위 궤양 터지고 복막염으로 온 농부들이 많아 6개월 동안 수술을 참 많이 했다. 서울도 아니고 스무 살 넘은 처녀 보기 힘든 시골 동네였으니 25살 미혼 여의사를 곱게 봐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젊은 여의사한테 수술받는 게 겁 안 나냐”고 물으면 나이 든 농부들은 씩 웃으면서 “바느질은 여자가 다 하잖느냐”고 했다. 서울 최고 인재들보다 편견이 없었다.

그렇게 1977년 서울대병원 여성 외과 전문의 1호가 돼서 원자력병원에서 일했다. 마침 미국에서 막 돌아온 김우기 교수가 서울대병원에 생긴 소아외과로 부임했다. 그가 “어른을 수술하면 4~5년이지만 애들은 수십 년을 더 살릴 수 있다. 그만큼 보람이 있다”며 설득하는 통에 2주 동안 답을 피하다 결국 1979년 소아외과로 전공을 바꿨다.

인생의 결정적 장면, 넷 아버지의 죽음, 구분무의 지혜

아버지는 박 교수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지난 2001년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 상태를 본 신경외과 교수가 결과가 안 좋을 거라며 “안 하겠다”는 걸 억지로 우겨서 수술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후 8~9개월 동안 끝내 단 한 번도 의식을 못 차리고 돌아가셨다. 의료비, 가족의 고생, 무엇보다 아버지 당시의 불필요한 고통. 후회했다. “의료라는 명목으로 아버지한테 못할 짓 한 게 아닌가.”

현역 시절엔 머릿속이 오로지 아이들 살릴 생각으로 가득 차서인지 아버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막상 정년이 다가오니 덜컥 겁이 났다. 미혼이라 고독사가 제일 무서웠고, 그다음으로 언니든 조카든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선택해 결국 아버지 같은 마지막을 맞이할까 두려웠다. 평소 알던 비구니 스님이 머무는 춘천 감주사에 내려간 이유다. 그리고 감 속에 품기만 하다가 3년 전쯤 연명의료결정서도 작성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죽음을 이렇게 허망하게 의사 손에 맡기고 싶진 않았다.

그에게 대체 의사란 무엇일까. 박 교수는 이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봉사”라고 답하면서, 구분무 LG 회장이 생전 로터리 클럽 강연에서 했다는 우스갯소리를 들려줬다. 사과 10개 중에 3개를 애들 셋한테 하나씩 나눠줘서 먹게 하고는 “몇 개 남았느냐”고 물었더니 한 놈이 “7개”가 아닌 “3개 남았다”고 하더라. “먹는 게 남는 거”라면서, “구 회장님 말씀이, 죽어서 한 푼도 못 가져가는데 돈이 많으면 뭐하나, 죽을 때 내 돈은 내가 가진 돈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남을 돕느라 쓴 돈이라는 거예요.”

어디 돈뿐일까. 의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살릴 수 있는 의술을 갖고 있으면 뭐하나, 실제로 살려야 의술이지. 그리고 박 교수는 “여전히 전성기”라는 그의 일생을 통해 실제로 이런 봉사하는 삶을 보여줬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하기 힘든 게 의사예요. 그런데 최근 다들 의사를 욕하니, 우리 때 산부인과 레지던트 하나가 3일 휴가 가보겠다고 3일 연속 연장 근무한 끝에 강원도 해변에서 심장마비로 죽기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진 아니어도 고생은 여전한데, 중환자실 들어가면 무조건 살아온다고 생각하니 의사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 거 같아요. 지금 갈등의 해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안혜리 논설위원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시 설

이런 식이면 비례대표 없애는 게 낫다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의 전지에 후보와 정영이 후보가 결국 12일 사퇴했다. 연합정치시 민사회 몫으로 비례대표 1번 순위를 받았던 전 후보는 과거 반미 단체 ‘청년겨레하나’를 이끌며 한·미 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민주당이 후보 교체를 요구한 상태였다. 전 후보는 사퇴 성명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늙은 색깔론’이라고 반박했지만, 자신의 생각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해명은 하지 않았다. 17번 순위의 정영이 후보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통일 선봉대’ 대장으로 사퇴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자칫 한·미 동맹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인사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뻔한 셈이었다.

전지에·정영이 사퇴해도 진보당 몫은 어떡할 건가 비례 선출에 대한 공적감시 보장할 강제 규정 필요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연합에서 논란의 대상이 이들 두 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이미 비례 당선권에 3석을 보장받은 진보당 후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진보당은 위헌정당 판정을 받고 해체된 통진당의 후신이다. 이번엔 연합정치시 민사회의 비례대표 심사위원단은 총 36명이었는데 한국진보연대 10명, 전국비상시국회의(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주도) 10명, 시민단체연대회의 10명, 각 정당 추천 6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한국진보연대는 운동권 NL(민족해방) 노선을 계승한 단체다. 이처럼 심사위원단(배정 50%)에서 진보연대·겨레하나 등 친북 단체 인사들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전지에·정영이 후보가 심사위원의 물표를 받을 수 있

었다. 애초부터 친북 후보들만 당선케 하는 자기들끼리의 ‘시스템 공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민주당의 또 다른 위성정당 격인 조국혁신당에도 전과자, 하급직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몰려들어 잡음이 일고 있다.

원래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가 힘든 각 직능의 전문가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지금 야권 위성정당은 중복 활동가의 해방구, 범죄 혐의자들의 피난처로 전략한 느낌이다. 비례대표 선출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된 건 현행 선거법에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 아무런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한때 그런 규정도 있었다. 2019년 여야는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의원·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 ▶공천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당헌·당규에 규정 ▶선관위에 후보자 추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제출 등을 의무화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런데 2020년 총선 후 여야는 슬그머니 해당 규정을 없애버렸다.

작금의 ‘중복 비례’ 사태에 비추면 비례대표 선출에 대한 공적 감시와 민주적 선출을 보장하는 강제 규정을 반드시 선거법에 제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소수 집단이 그들만의 리그를 꾸려 사실상 밀실 공천하는 행태가 반복되면 비례대표 폐지 여론이 들불처럼 번질 수밖에 없다.

주총 공세 나선 행동주의, 기업 성장 해치는 일 없어야

주주총회 시즌의 막이 올랐다. 지난해 12월 결산을 마친 유가증권(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상장사의 올해 주총에서는 경영권과 주주 가치 제고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더해 이에 기반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강화되면서다.

행동주의 펀드는 단순 투자를 넘어 상장 기업에 경영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 등을 요구해 수익률을 높이는 펀드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주장하며 일부 펀드는 ‘떡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반면에 소액주주와의 연대 등을 통해 상장사임에도 지배주주의 이익에만 몰두해 왔던 기업의 체질 개선 등에도 기여한 측면은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원조로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이 주주 가치 제고 등을 통해 주가 부양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를 끌어들이 ‘매기’ 역할을 맡긴 전략도 주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에서도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과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주총에서 소액주주와 손잡은 행동주의 펀드가 대주주인 이수만 전 프로듀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게 대표적이다. 한국 ESG기준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주제안 기업 및 안건은 50개사, 195건이었다. 2021년(34개사, 168건)보다 늘어났다. 입김은 더 세지는 추세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

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이 주총을 통과한 비율은 지난해 20.2%로 2021년(5.5%)과 2022년(5.6%)에 비해 4배로 높아졌다.

문제는 주주 이익 제고에 나선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 이익만을 노린 ‘주주 포퓰리즘’으로 치우칠 우려다. 과도한 수준의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을 주장하며 기업의 성장 여력을 훼손할 수 있다. 실제로 오는 15일 열리는 삼성물산 주총을 앞두고 시티오브런던 등 5개 외국계 사모펀드가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며 ‘울프 팩(wolf pack·늑대 무리처럼 여러 펀드가 뭉쳐 한 기업을 공격하는 것)’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들 행동주의 펀드 연합은 삼성물산에 5000억원어치의 자사주 매입과 주당 4500원(우선주 4550원)의 배당을 요구했다. 1조2364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으로, 이는 삼성물산의 올해 현금 창출 능력인 잉여현금흐름(FCF)을 웃돈다.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대로라면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투자 등 기업의 미래를 위해 써야 할 돈을 주주에게 다 쥐버리는 셈이다.

기업이 성장하고 그렇게 키운 파이프(이익)를 제대로 나누는 것이 주주 가치 제고의 선순환 방식이다. 눈앞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해 성장 여력을 갉아먹는다면 당장은 남는 장사일 듯하지만, 기업과 주주 모두의 미래를 없앨 뿐이다.

민주당, 불평등한·미 해체 동의하나



고정애의 시사각각
時 視 各 角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이승만 대통령의 권위주의의 통치 시작으로 보는 이가 많다.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펴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엔 이렇게 기록돼 있다.

“1949년 5월부터 8월까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소장파’ 국회의원들 10여 명이 검거되었다. 그들이 기소된 이유는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에 외국군 철퇴와 군사고문단 설치에 반대하는 진언서를 제출한 행위가 남조선노동당 국회 프락치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모두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고문으로 인한 허위 진술의 자백 내용과 신빙성이 검증되지 않은 압호 문서를 근거로 1950년 3월 14일에 국회의원 1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대백과는 피고인 대부분이 한국전 발발 후 월북했거나 납북됐다고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썼다. 그러나 ‘고문으로 인한 허위 진술’ 등에서 연구원의 판단이 드러난다. 과연 그런가.

1991년 발간된 남북 요인들에 대한 삶에 대한 증언록(『압록강변의 겨울』)엔 프락치 사건 관계자들의 얘기도 담겼다. 조소앙·안재홍 등 납북 인사들이 기거하는 집마다 프락치 사건 관계자들이 한 명씩 있었다고 한다. 북한 정보국 요원들이 이들을 만나 함께 기거하는 다른 납북 인사들의 동태에 관해 묻곤 했다는데, 일부 프락치 사건 관계자들에게 이 게 불만이었다. 이들은 “우리가 남로당 비밀당원으로서 국회에서 큰 활동을 했고 감옥살이까지 했기 때문에 북에 오면 큰 대우를 받을 줄 알았는데…”라고 한탄했다는 것이다.

북한도 1997년 5월 노동신문을 통해 “간첩 성시백이 1948년 가을부터 국회를 대상으로 공작을 폈고 김약수 부의장과 의원 수십 명을 포섭하는 데 성공해 ‘외군 철퇴 요청안’을 발표케 했다”고 보도했다. 오인환 전 장관은 “국회 프락치 사건은 뒤늦게나마 진짜 국보법 위반 사건임이 북한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이승만의 삶과 국가』)고 썼다.

여전히 다수예견 ‘프락치 사건 관계자=무고한 피해자’로 새겨져 있을 것이다. 반공을 통치 원동력으로 삼아 온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경험 탓일 것이다. 진짜 무고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체제에 침투했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것이란 사실 또한 분명하다. 이를 경계하자고 하면 지금도 관성적으로 ‘색깔론’으로 치부해 버리는 이가 많다. 불행한 일이다.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주축 586 중 일부가 1995년 남과 공작원과 접촉했을 때 북한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당국에 신고하지도 않았던 데서 드러나듯 일종의 ‘뭇 본 체’도 한다.

요즘 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아예 판을 깔아준다는 느낌을 받는다. 물론 과거에도 진보 정당과 선거연대를 한 적이 있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 1번 사퇴 위성정당 야인 양 위성정당 하려 진보당·반미 인사와 손잡다 사달

다. 당시 노회찬·심상정의 당이었다. 지금 손잡은 진보 정당은 진보 진영에서도 ‘종북’이란 비판을 받던 세력이 집어삼킨 정당이다. 남북 간 전쟁이 벌어지면 남한의 국가시설을 파괴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정당의 후신이기도 하다.

결국 비례대표 1번이 유력했던 반미단체 출신의 전지에가 후보를 사퇴했지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진보당과 각종 반미·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박석운·조성우와 손을 마주 잡을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민주당에선 뒤늦게 “매우 우려한다”고 했던데, 우세스러운 일이다. 털 소란스러운 뿐 제2, 제3의 전지에가 나올 것이다.

민주당이 대놓고 위성정당을 하면 될 걸, 아닌 듯하다가 이 사달이 났다. 정상적으로 하면 원내에 한 석 얻기도 어려운 정당에 너댓 석 이상을 안겨주게 됐다. 민주당이 그만큼 후한 건가, 순진한 건가, 그리 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진보당 강령엔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해체하겠다”는 게 있다. 이런 곳에 기꺼이 의석을 떠안기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가.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전화 02-751-5114, 9114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재조명하며 대한민국 탄생의 비밀을 밝히는
다큐영화 <건국전쟁>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2024년 3월 16일(토) 6시~~, 2024년 3월 17일(일) 6시
SOLD OUT
- 장소: AMC Tysons Corner 16
7850e Tysons Corner Center, McLean, VA 22102
- 티켓 가격: \$15 Eventbrite Link  
또는 onekoreanetwork.com 에서 티켓을 구매하세요.
(TEL:202-394-7005/info@onekoreanetwork.com)

The Birth of Korea (With English Subtitles)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던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

2024년 2월 1일 개봉

대한민국의 탄생, 그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건국전쟁
THE BIRTH OF KOREA

각본 감독 김덕영

12세 이상 관람가

기획 제작 다큐스토리 프로덕션 공동제작 대한민국사랑회 트루스포럼 프로듀서 임수영
스토리 어드바이저 류석준 이호 각본 편집 감독 김덕영
촬영 임수영 Henry Song 김덕영 자료 리서치 이윤희 이상기 최옥형 음악 오현규 사운드믹싱 유광현
데이빗 필즈, 류석준, 이호, 송재운, 이한우, 그렉 브레진스키, 마이클 브린, 에드먼드 황, 김동균, 장안기, 김은구
이용희, 황준석, 마이클 리, 이동욱, 조슈아 필립, 주동완, 에이브리 라이더, 엔 고바야시, 케일 후쿠나가

• 주최:  **KUAUF**
한미동맹 USA 재단
지역회장: 헨리송

• 주관:  비영리재단

이승만 대통령 기념연구교육 재단
The President RHEE Syngman Foundation, Inc.
Dong Ja Yang, Ph.D. / 양동자 박사
Chancellor, BOD Chairman, CEO

 **KN**
One Korea Network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March 13, 2024 C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용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수영 후 찌르는 듯한 어깨 통증,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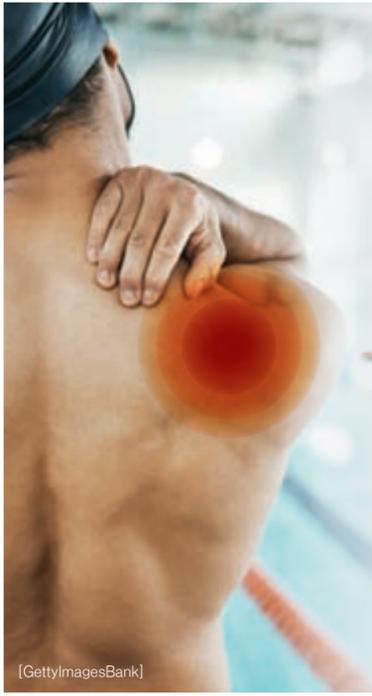
지난달 '황금세대'로 불리는 우리나라 수영 선수들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이뤄냈다. 황선우 선수는 박태환 선수의 종래 기록을 넘어 세계수영선수권 개인 통산 한국인 최다 메달리스트로 올라서며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7월 열린 파리 올림픽의 수영 종목에서도 다수의 금빛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시기적절하게도 최근 수영장, 헬스장 등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논의도 기사로 나오고 있다. 국내 한 신용카드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취미·여가 비용 중 지출이 가장 큰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건강·피트니스 업종이 전체의 약 24%로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영은 몸매를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이다. 유연성, 근력, 심폐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며 혈액순환에도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다. 수영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소속 연구진이 총 11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찬물 수영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불안(46.9%), 기분의 변동(34.5%), 우울감(31.1%), 안면 홍조(30.3%) 등의 증상이 수영 이후 줄어들었다고 보고했다.

다양한 건강상 이득을 가져다주는 수영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부상 위험이다. 대표적으로 어깨 부상을 꼽을 수 있다. 물속에서 속도를 내며 헤엄치려다 보면 자연스레 팔에 힘을 주고 빠르게 움직이게 된다. 어깨관절의 사용량이 늘고 다칠 위험이 증가한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관절을 덮고 있는 4개의 커다란 근육(견갑하근, 극상



[GettyImagesBank]

어깨관절 덮고 있는 4개 근육 손상 방지 멘 파열 심화, 팔 사용 힘들어 약침·추나, 통증 줄여주고 회복 촉진
원 그리기 스트레칭, 부상 방지 도움

회전근개 파열 한방통합치료의 효과

자료 : 자생한방병원

통증평가(NRS)	어깨통증장애지수(SPADI)
치료 전 5.8점	치료 전 51.48점
치료 후 3.5점	치료 후 37.76점

※어깨 문제로 인한 일상 생활 등 기능적 요소 등을 평가한 척도, 숫자가 클수록 통증이 심함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원 그리기
골반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양 팔을 좌우로 뻗어 대(大)자를 만든 후, 어깨를 중심으로 양팔을 돌리며 15초 동안 20~30회 원을 그린다

수건 당기기
수건을 등 뒤로 넘겨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머리 위쪽으로 최대한 끌어올려 15초간 유지한다. 양쪽으로 3회씩 3세트 반복한다

한 팔 뺏기
다리를 벌리고 서서 팔을 바깥쪽 30도 사선 방향으로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린다. 양쪽 10회씩 3세트 반복한다

근, 극하근, 소원근)의 손상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평소 회전근개는 어깨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너무 반복적으로 팔을 머리 위로 움직이거나 돌리는 행위, 또는 강하게 당기는 동작을 과도하게 실시한다면 손상을 입게 될 수 있다. 이외에 노화로 인한 근육의 퇴행성 변화,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회전근개가 손상되면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으로 인해 팔을 들어 올리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 관절 불안정성이 동반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여기에 더해 손상 부위 주변에 발생한 염증은 밤이 되면 더욱 극심한 통증을 초래한다. 야간에 나오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질환 초기에는 비수술 치료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 파열이 심해 운동 장애와 근력 약화로 이어지면 팔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수영 황제 펠프스도 부항 즐겨 받아 만약 수영을 즐기다 평소 느끼지 못했던 통증이 발생한다면 한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영 황제로 불리며 미국에 많은 메달을 가져다준 마이클 펠프스 선수도 부항을 즐겨 받으며 컨디션을 회복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하늘 부산자생한방병원 병원장 >> 4면 '어깨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수영 황제 펠프스도 부항 즐겨 받아 만약 수영을 즐기다 평소 느끼지 못했던 통증이 발생한다면 한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영 황제로 불리며 미국에 많은 메달을 가져다준 마이클 펠프스 선수도 부항을 즐겨 받으며 컨디션을 회복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하늘 부산자생한방병원 병원장 >> 4면 '어깨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메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야곱의 사막다리
www.ji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 (상담 환영)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주말엔 늦잠 당연? 늦게 잠자리 들더라도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

숙면 위한 루틴 5 잠은 생명 유지와 건강에 필수적이다. 사람은 잠을 자면서 지친 몸을 회복·재충전한다. 침대 위에서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면 숙면에 들기 어렵다. 숙면의 질이 나빠지면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기억력·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비만·고혈압·당뇨병·치매 같은 질환의 위험이 커진다. 잠이 보약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해가 길어지는 3월은 몸에 밴 나쁜 숙면 습관을 바꾸기 좋은 시기다. 세계 숙면의 날(3월 15일)을 계기로 숙면을 위한 핵심 루틴을 알아봤다.

권선미 기자



Check 1 쉬는 날이라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각은 동일하게

좋은 잠을 위한 숙면 습관의 핵심은 숙면 리듬 지키기다. 주중이든, 주말·연휴든 상관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한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주은연 교수는 “밀린 잠을 잔다고 늦잠을 자면 잠을 유도하는 수면 호르몬이 늦게 분비돼 그날 밤부터 숙면 리듬이 깨져 다음 날 아침에는 일어나기 더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적어도 잠에서 깬 뒤 15시간 이상 지나야 다시 분비된다. 잠에서 깨는 기상 시각이 중요하다. 특히 전날 늦게 잤더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 늦게 잤다고 늦잠을 자면 자야 할 때 졸리지 않는 패턴이 고착화된다.

따라 적정 수면 시간이 다르지만 대략 7~8시간이다. 적정 수면 시간이 8시간인 사람이 매일 6시간만 잔다면 일주일에 14시간의 수면 부족이 생긴다는 의미다. 결국 수면 빛이 쌓이면서 몸이 축난다. 만성적 수면 부족으로 뇌세포에 축적된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같은 찌꺼기가 청소되지 않아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고,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가 증가해 비만해지기 쉽다. 강동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권오은 교수는 “일어나야 하는 기상 시각을 중심으로 적정 수면 시간을 빼면서 자야 할 때를 정해두고 이를 지키도록 노력하면서 수면 빛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heck 3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흔히 잠자리에 누워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으로 SNS를 확인하고 간단한 글을 남기고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기기에서 내뿜는 강렬한 빛인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오히려 잠을 방해한다. 특히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잠들기 어렵게 만든다. 자기 전 스마트폰을 사

용하면 멜라토닌 분비 시각이 30분 이상 차이가 난다는 연구도 있다. 멜라토닌은 어두워야 잘 분비된다. 가령 밤 10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적어도 9시부터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잠이 오지 않는다고 억지로 침대에 누워 있지 않는다.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김현준 교수는 “잠자리에 든 후 20분이 넘도록 잠이 들지 않는다면 뒤척거리지 말고 바로 일어나 거실에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다가 졸릴 때 다시 잠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Check 4 코골이 심하다면 양압기 치료 고려해야

코골이 등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 교정도 필요하다. 자면서 코를 곤다면 수면 무호흡을 동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이가 들거나 살이 찌면서 기도가 좁아져 코골이가 나타나고 허뿌리가 공기의 흐름을 막으면서 호흡이 일시적으로 끊기는 수면무호흡으로 악화한다. 반복적 수면무호흡은 체내 산소포화도를 떨어뜨리고, 뇌에 미세 각성을 일으킨다. 수면무호흡으로 불면증이 생기기도 한다. 경희대병원 신경과 황경진 교수는 “수면무호흡이 있다면 코로 강한 압력의 공기를 넣어 기도를 열어주는 양압기 치료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미국수면학회 등에서도 수면무호흡의 표준 치료로 양압

기를 권장한다.

Check 5 햇빛 노출로 수면 효율 높이기

햇빛은 천연 수면제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빛 자극을 통해 낮에는 깨어 있고 밤에는 자는 24시간 일주기 리듬을 유지한다. 햇빛은 생체 시계를 자극해 일주기 리듬을 맞추면서 수면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이향은 교수는 “하루 햇빛 노출 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짧으면 체내 비타민D 분비가 줄면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지 않아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고 말했다. 불면증으로 잠을 자기 어렵다면 오후에 햇빛을 보면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다.

Check 2 수면 시간 확보해 수면 빛 없애기

한국은 대표적인 수면 부족 국가다. 대개 잠을 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 늦은 밤까지 졸음을 참고 무슨 일든 한다. 수면 시간이 짧으면 수면 부족으로 몸이 피곤하고 일어나서도 계속 졸리다고 느낀다. 연령·성별에

기고 김승연 제일정형외과병원 재활의학센터 원장

근육감소는 노화 아닌 질병, 활기찬 노년 위해 미리 관리를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제10회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5년 전에 비해 남자는 2.8세, 여자는 2.2세 증가해 남성은 86.3세, 여성은 90.7세로 나타났다.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 나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하게 활동하며 지내느냐는 것이다.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중년기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근육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근육 감소는 노화 현상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근육의 양과 기능이 감소하는

것을 근감소증으로 분류하고 질병으로 분류했다.

근육이 감소하면 우리 신체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에너지 비축 능력이 떨어져 쉽게 피로를 느끼고, 에너지 대사가 낮아져 당뇨·고혈압 등의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관절 및 인대를 잡아주는 힘이 약해져 골격계가 받는 압박이 커지고 안정성이 줄어들면서 허리나 관절 통증이 나타나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대해 신체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낙상과 외상의 빈도가 높아진다.



근감소증 노인의 영양병원 입원 및 사망 확률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 노인이 영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남성은 5.2배, 여성은 2.2배로 높다는 결과가 있다. 근육 건강 관련 학술지(Journal of Cachexia, Sarcopenia and Muscle)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등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 심혈관계 사망률 증가와 관련 있다. 신체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감소증은

다른 질환 증상이 유사해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신체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도움된다. 만약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5회 진행했을 때 12초 이상 소요 ▶종아리의 가장 볼록한 부위가 남성은 34cm, 여성은 33cm 미만 ▶한쪽 다리를 들고 균형을 잡았을 때 50대는 30초, 60대는 10초, 70대는 5초 미만이라면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다. 이 경우라면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근감소증은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영양 섭취가 모두 잘 이뤄져야 한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무산소 운동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 빨리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매일 30분 이상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식습관도 중요하다. 특히 근육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일반 성인의 권장 단백질량은 0.8~1.0g/kg(체중)이지만, 이미 근감소가 진행됐다면 1.2~1.4g/kg(체중)까지 권장된다. 고기 섭취가 어렵다면 달걀·두부·생선 등을 통해서라도 단백질 섭취를 꼭 해야 한다.

혜민한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6%	0.6%	13.3%	42.9%	2.3%	0.0%
대우총동	당뇨	노화시작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성,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찌릿찌릿
바닥 못누움

손가락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toes

발목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구부리기
힘들다

뒤로
피기
힘들다

75°

30°

sciatica

좌골신경통

영치

포리백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혜민한의원

뇌신경 조절
한 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월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방광... 물 1L 나눠 먹고 케겔 운동 병행해야

수분 물 1L 조금씩 나눠 마시기

소변은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이 양쪽 신장(콩팥)에서 걸러져 생겨난 부산물이다. 성인의 경우 하루 약 1.5~2L 생성된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길이 25~30cm 되는 요관을 거쳐 방광으로 이동한다.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차면 대뇌로부터 배뇨 신호를 전달받아 방광의 출구가 열리고 배출이 시작된다. 배뇨장애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광은 골반 안에 위치한 장기다. 점막과 점막하층, 근육층, 지방층으로 이뤄진 근육 주머니로 신축성이 매우 좋아 소변이 차면 풍선처럼 늘어났다가 배출되면 작게 오므라든다.

건강한 방광 관리의 제1 요소는 적절한 수분 섭취다. 부족해도, 과해도 문제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뇌 부위의 감수성이 떨어져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목이 잘 마르지 않는다. 물을 적게 마셔 방광의 크기와 기능이 더욱 감소한다. 반대로 커피를 수시로 마시거나 수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빈뇨를 유발한다. 나이가 들어 활동량이 줄면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량 역시 감소한다. 따라서 하루 세끼 식사를 잘하는 중년이라면 식사만으로 1L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게 되므로 물은 하루 1L 정도 마시면 충분하다. 이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다.

질환 전립샘비대증·방광염 치료하기

방광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 질환의 하나가 전립샘비대증이다. 전립샘은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고 운동을 돕는 생식기관으로 방광 아래쪽 깊숙한 곳에 요도를 감싸고 있다. 중년 이후 크기가 점점 커져 요도를 압박하면서 배뇨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심각하게 나빠진 방광 기능은 전립샘비대증을 수술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부끄럽단 이유로 진료를 미루기보다 빈뇨, 야간뇨, 잔뇨감, 급박뇨 등의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 약물치료로 방광 기능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방광염을 주의해야 한다. 세균이 요도를 통해 방광 내에 침입해 생기는 질환이다. 여성은 요도가 짧고, 요도와 항문의 거리가 가까워 세균이 침입하기 쉽다. 방광염에 걸리면 소변을 참을 수 없고 자주 마려우며 소변 시 통증을 동반한다. 심하면 허리나 하복부에 통증이 발생하고 혈뇨·농뇨가 보이기도 한다. 주로 증상과 소변 검사를 기초로 진단한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원인균을 찾고 적절한 항생제를 써서 치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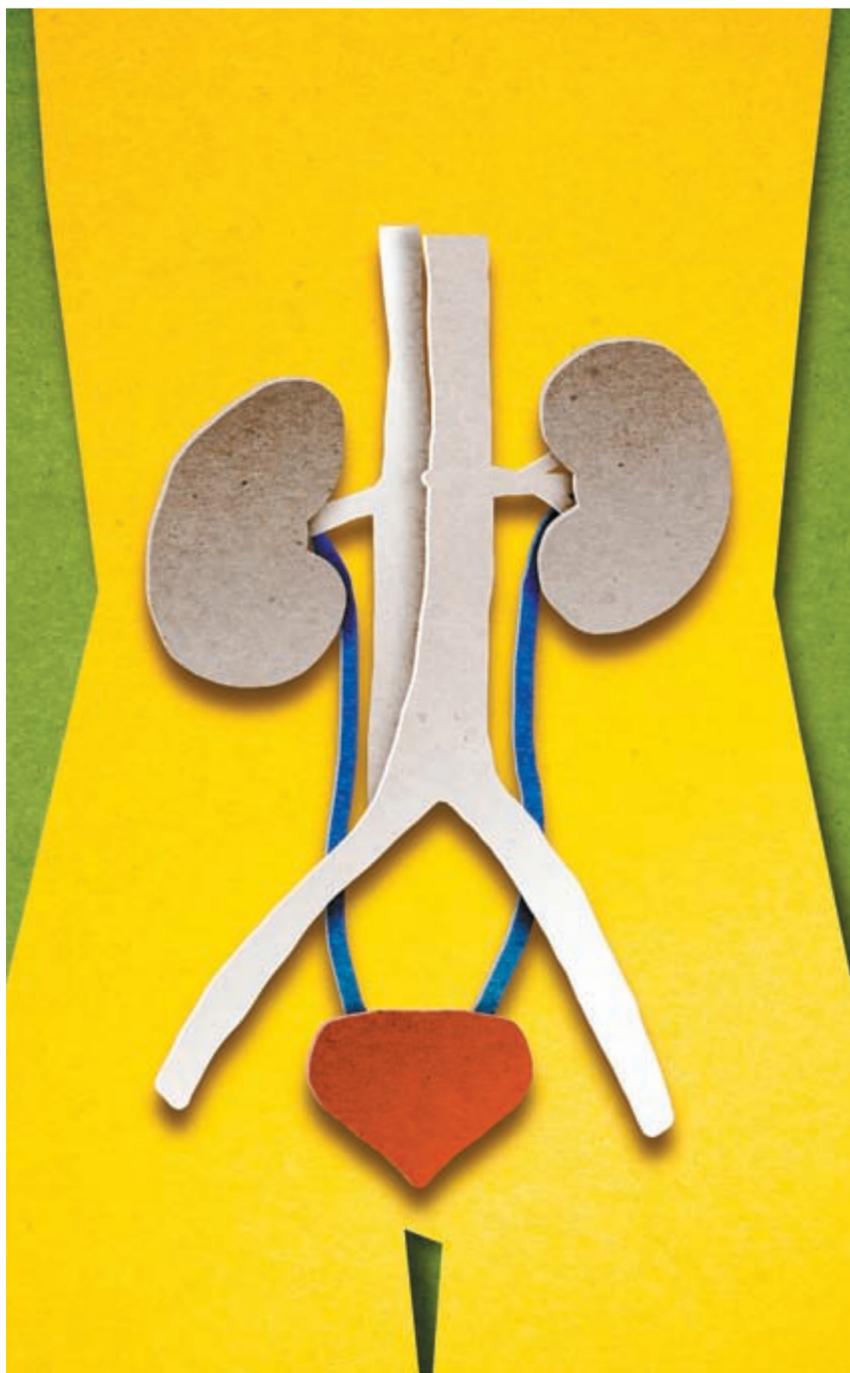
나이 든 방광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져 움직이 줄고 신경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약한 자극에도 수축이 일어나는 과민성 방광으로 고생할 수 있다. 소변을 못 참는 절박성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며 보통 빈뇨·야간뇨를 동반한다. 과민성 방광 환자는 증상 탓에 사회 활동에서 고립되기 쉬워 우울증 발생 빈도가 높다. 특히 화장실을 급히 가다 낙상할 위험이 있어 골절 가능성을 높이므로 꼭 치료를 받아 개선해야 한다.

일지 배뇨 일기 쓰고 방광 훈련하기

노년기 대비 방광 관리법

방광은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진다. 요즘 중장년층에서 흔한 전립샘비대증·방광염·과민성 방광과 같은 질환을 앓으면 소변이 새거나 안 나오는 배뇨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건강한 배뇨 기능을 유지하느냐 못 하느냐는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방광 기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호전되기 어려우므로 30~40대부터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몇 가지 주요 키워드를 기억하고 실천해 방광을 건강하게 관리하자.

김선영 기자



평소 배뇨 활동에 불편감을 느낀 사람이라면 일지 쓰기를 권한다. 일기를 쓰듯 스스로 소변 본 시간, 1회 소변량, 1회 배뇨 시까지 수분 섭취량, 배뇨와 관련한 불편감을 기록하는 작업이다. 이를 꾸준히 기록하면 본인이 언제 소변을 보는지, 한 번에 얼마만큼 소변을 보는지, 어떤 때 새는지, 섭취량과 배설량의 균형이 좋은지를 알 수 있다. 평소보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거나 밤에 소변이 마려워 2회 이상 잠에서 깨는 등 증상이 악화하면 주저하지 말고 일지를 지참해 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록한다.

특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어렵거나 소변을 보면 소량만 나오는 경우,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은 배뇨 일지를 기반으로 방광 훈련을 하면 정상적인 배뇨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 소변 보는 간격을 점차 늘리도록 연습함으로써 방광에 채울 수 있는 소변량을 늘려가는 훈련이다. 일부는 소변을 오래 참으면 병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소변이 조금만 마려워도 화장실에 바로 가는데 이는 방광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많이 마려울 때까지 소변을 참았다가 한 번에 250~300cc 정도 양을 하루 8회가 넘지 않게 누는 것이 좋다.

방광 훈련을 할 땐 커피나 홍차, 코코아, 탄산음료, 술과 같은 방광을 자극하는 음료는 마시지 않는다. 잠자리에 들기 전 소변 보는 것을 제외하곤 마렵다고 즉시 소변을 보지 않는다. 약을 먹고 있다면 주치의와 먼저 상의한 후 훈련한다. 소변 보는 간격이 전보다 길어지고 소변량이 많아지며 소변 횟수가 줄었다면 방광 훈련이 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피로감이 있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신경 쓸 일이 많을 때, 생리 기간, 날씨가 춥고 습하며 바람이 많이 불 땐 일시적으로 방광이 잘 조절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요소가 없다면 증상이 다시 좋아지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운동 골반저·복부 근육 강화하기

방광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려면 방광과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필히 해야 한다. 케겔 운동(골반저근육 운동)이 대표적이다. 골반저근육을 튼튼히 해주면 아래로 처진 방광과 요도가 제자리로 회복하고 질 안쪽 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져 배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출 때 사용하는 근육이 골반저근육이다. 방귀를 참는다고 생각하면서 방귀가 나오지 않도록 항문을 위쪽으로 당겨 올리는 느낌으로 조이면 골반저근육을 수축할 수 있다. 이때 1에서 5까지 천천히 세고 나서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힘을 뺀다.

초기엔 눕거나 앉은 채 다리·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자세에서 하고 운동할 때 숨을 참지 않아야 한다. 또 운동 중 엉덩이나 아랫배에 손을 대고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익숙해지면 일정한 자세에 연연해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수시로 시도한다. 케겔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한다. 바쁘거나 좀 나아졌다고 그만두면 좋아진 근육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거나 버스·전철 안에서, 욕조 안에서, 양치할 때 등 하루 40회 이상, 3~6개월 넘게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인다.

이와 함께 복부와 전신 근육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 평소 걷기나 하체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하면 몸의 근력과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어서 원활한 배뇨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도움말=김준모 순천향대 부천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이형래 강동경희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역촌 앞 7700 건물 6층**

인터뷰 강남차병원 김병식·김희성 교수팀

위암 진단부터 수술까지 2주 내 윈스텝 명의팀이 치료 전 과정 맡고 콜론 소통



한국의 위암 치료 수준은 선진국을 능가한다. 하지만 환자·보호자가 겪는 현실의 벽은 높다. 명의 진료의 문턱을 겨우 넘어도 여러 검사와 진료로 수차례 내원해야 한다. 위암 명의인 강남차병원 김병식·김희성 교수팀이 명의 진료 문턱을 낮추고 치료 전 과정에 직접 나선 배경이다. 진료실 밖에서도 환자와 소통하며 윈스텝 진료를 설계한다. 위암뿐 아니라 위장관 종양과 비만대사, 당뇨병 질환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받고 싶은 수술을 환자에게 한다’는 진료 철학을 실현하려 고민했다고 한다. 조만간 일산차병원에 위암 센터를 열고, 강남·일산을 오가며 환자를 만난다. 김병식 교수는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인 위-장 연결을 복강경으로 시행하는 수술(체내 문합술)로 환자 삶의 질을 높이는 위암 수술 발전에 토대를 닦았다. 김희성 교수는 위암에 더해 대사 질환의 주원인인 비만 수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독보적인 여성 위장관외과 전문의다. 김병식·김희성 교수를 만나 강남차병원이 특화한 명의팀 중심 윈스텝 진료의 의미를 들었다.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

강남차병원 위암 명의팀 김병식 교수(왼쪽)와 김희성 교수는 진료부터 수술까지 전 과정을 직접 하고, 콜론으로 궁금증 전화도 받는다. 19일부터 일산차병원에서도 진료를 시작한다.

지미연 객원기자

-위암 진단 후 빠른 수술이 왜 유리한가.

김병식 교수(이하 김병식) 위암은 빨리 발견해 암 상태에 따른 원칙적인 수술을 받는 것이 최선이자 완치의 길이다. 우리나라의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는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받은 환자 비율을 반영한다.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수술까지 지연이 많다. 진찰, 검사, 다른 과 협진 등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 그렇다. 시스템적으로 시간이 늦어지는 걸 줄이고 빨리 수술하는 게 환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팩트다.

김희성 교수(이하 김희성) 위암을 조기에 발견했다더라도 결코 재발·전이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 진행성 위암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수술 시기를 놓친다.

-어떤 시스템을 도입했나.

김병식 모든 치료 과정을 위암 명의팀이 직접 한다. 진단·검사는 당일, 수술까지는 2주 이내 윈스텝으로 이뤄지는 시스템도 갖췄다. 강남차병원은 지방 환자도 많아서 윈스텝 진료에 만족도가 높다. 팀워크가 좋고 의사 결정이 빠르니 치료에도 속도가 붙는다. 그간 34년 위암 수술만 했으며 한 팀인 김희성 교수와는 20년 가까이 됐다. 오래 손발을 맞춘 팀이라 치료 결과가 좋다.

김희성 세부적으로는 환자와 밀접하게 소통하는 콜론 제도가 있다. 필요한 진료 전에 복용 약과 기저 질환을 검토하고 준비 사항을 안내·조율한다. 초진 당일엔 검사·협진을 받도록 조치해 수술 전 준비를 끝내기 위해서다. 특히

암 환자는 수술·항암 계획을 세워야 해 영상의학과 판독이 중요하다. 오전에 촬영하면 오후에 대부분 검사 결과까지 윈스텝으로 나온다.

-치료법을 권하는 기준은 뭔가.

김병식 내가 위암에 걸렸을 때 받고 싶은 수술을 환자에게 한다. 강남차병원 위장관외과는 ‘FAST&BEST’가 구호다. 위암 치료에 숙달된 명의팀이 각 환자에게 최적의 수술을 추천한다. 칼잡는 의사는 현역으로 뭘 때 최신 경향을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며 모든 항목을 숙달해야 한다. 치료의 장단점에 따라 BEST를 선택할 수 있다. 경험 있는 전문의를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조기 위암이든, 진행성 암이든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개복·복강경·로봇)이

다 다르다. 수술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 삶의 질 저하를 막는데 중점을 둔다. 예컨대 우리 팀은 대부분의 진행성 위암 환자를 복강경으로 수술할 수 있다. 안전성·효과는 입증됐다.

-환자 마음까지 헤아리는 노하우가 있나.

김희성 암 환자 보호자로서 경험이 있다 보니 환자·보호자의 고충과 어려움을 더 공감하게 됐다. 콜론과 네이버 카페로 환자·보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유다. 일례로 환자는 수술 후 생활 습관과 이상 증상에 궁금한 게 많다. 외래·병동에서 설명을 들어도 잘 잊어버린다. 콜론을 통해 초음급 환자를 바로 병원으로 이동시켜 살린 적도 있다. 사소해 보이는 질문이더라도 환자가

의료진의 답변을 듣고 불안을 덜면 스스로 일상을 잘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삶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효과가 크다.

-담낭·비만대사 질환에도 강점이 있는 배경은 뭔가.

김희성 비만대사 수술은 위의 저장·흡수 능력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위-장 연결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다루는 전문가가 상부위장관외과 전문의다. 위를 절제한 환자의 6~26%는 담낭에 돌이 발견되는 경향이 있어서 위암 수술 후 담낭 질환도 집중적으로 추적 관찰한다. 미국 등 해외에서 담낭·비만대사 질환 치료 문의가 많다. 콜론을 활용해 한국 체류 기간과 현 상태를 보고 이에 맞춰 계획을 세운다. 다양한 중증 위장관 질환에서 진료 문턱을 낮췄다.

▶ 1면 ‘어깨 통증’에서 이어집니다

한의학은 근골격계 관리 및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회전근개 파열도 마찬가지다. 침 치료를 비롯한 한방통합치료를 조기에 실시한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천종혈(天宗穴), 견우혈(肩髃穴)에 실시하는 침 치료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손상된 근육과 인대의 회복을 촉진한다. 또 과도하게 긴장된 근육 등 어깨 주변 조직을 풀어내 어깨 움직임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을 약침으로 해결한다. 한약재 주요 성분을 인체에 무해하게 정제해 조제한 약침은 염증을 제거하고 긴

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주변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여기에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를 밀고 당겨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실시하면 어깨관절 기능 안정화와 근육 이완, 가동범위 회복에 도움이 된다. 더불어 환자 증세에 따라 맞춤 처방하는 한약 복용을 병행하면 더욱 빠른 어깨 근육과 인대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회전근개 파열 한방통합치료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탐구(EXPLORE)’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침 치료, 추나요법 등 한방통합치

료는 어깨의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가동범위를 개선하는 등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팀은 한방통합치료를 받은 회전근개 파열 환자 288명을 대상으로 통증숫자평가척도(NRS), 어깨통증장애지수(SPADI), 삶의 질 척도(EQ-5D) 등을 통한 증상 개선 정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NRS는 입원 당시 심한 통증에 해당하는 평균 5.8점에서 퇴원 시 3.5점(경증 수준)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SPADI 또한 51.48점(중증 수준)에서 37.76점(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어깨관절가동범위(ROM) 검사도 마찬가지로 모두 유의미한 개선 결과를 보였다. 퇴원 후

평균 2년8개월의 추적관찰을 통해 살펴본 EQ-5D 값(10이 최고점)도 치료 전 0.63에서 0.82까지 상승해 삶의 질이 개선됐다. 특히 함께 진행한 환자 만족도 조사(PGIC)에서는 전체 환자 중 89%가 치료에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수영 전후 스트레칭으로 몸 풀어줘야

치료보다 우선할 것은 예방이다. 수영 전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탈의 후 따뜻한 샤워장을 거쳐 수영장에 입장하면 비교적 차가운 기온과 수영장 물 온도 탓에 근육이 긴장하며 유연성이 떨어지기 쉽다. 이때 바로 운동을 실시하면 부상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리 몸을 충분히 풀어줘야 한다.

어깨 부상을 방지해줄 스트레칭으로는 관절과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원 그리기 스트레칭’을 추천한다. 골반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선 뒤 양팔을 좌우로 쭉 뻗어 대(大)자를 만들어 준다. 이후 어깨를 중심축으로 양팔을 돌리며 15초간 20~30회 원을 그린다. 이어 반대 방향으로 동일하게 15초간 돌려준다. 처음에는 작은 원을 그리다 점점 크게 그려주면 된다. 원 그리기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어깨의 전반적인 가동성을 높여주고 부상 위험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김하늘 부산자생한방병원 병원장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종 보험 적용 됩니다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 장 강 동 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 치아교정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락빌 (301) 279-6960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의학 칼럼

47세 여자 환자가 갑자기 발생한 어지럼증으로 필자를 찾아왔다. 환자의 증상은 구토 및 안구떨림(안진)을 동반한 심한 어지럼증이었다. 진단은 전정기관의 이상으로 인한 "말초성 어지럼증"이었다.

어지럼증은 매우 흔한 신경학적 증상이다. 신경내과를 찾아오는 어지럼증 환자의 수를 헤아려보지 않더라도, 인구의 10%이상에서 평생 어지럼증을 한번 이상 경험한다고 한다. 어지럼증이 얼마나 흔한 증상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은 어지럼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관한 것들이다.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운동이 좋은지?" 하는 등의 물음이다.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어떤 음식이 어지럼증에 좋은지에 대한 답으로, 좋은 음식을 찾아먹기보다는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알코올은 매우 전정기능에 해를 미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야할 음식 가운데 하나다. 또한 대표적인 것으로 커피, 차 등에 들어 있는 카페인에 대한 물음이다.

카페인이 어지럼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매우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전통적으로 어지럼증의 원인 중의 하나인 전정신경염의 경우, 카페인 섭취가 이의 회복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어 카페인의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섭취가 전정기능 회복에 매우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카페인은 미세혈액순환을 저해하

여 결과적으로 전정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정기관에 대한 운동으로 한쪽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나머지 한쪽의 전정기관으로 평생 살아야 하므로 전정기관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하게 된다.

흔들리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한 평형 운동이 된다. 요가, 필라티스나 기공과 같은 한발로 서는 동작을 많이하는 운동도 어지럼증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운동을 촉진하고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므로 이 또한 매우 좋은 운동 가운데 하나다.

운동중추는 다리를 하나씩 움직이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걸어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걷는 동작이 한꺼번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 진행된다기 때문에, 계단을 하나씩 세면서 내려가기보다는 두 개씩 세면서 내려가면 매우 효율적인 운동이 된다.

또한 계단을 빨리 올라가는 운동은 심폐기능과 다리 근력을 강화시키고 순발력을 키워준다. 계단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전정기능과 운동중추를 효과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기구인 셈이다.

>상담 문의 :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건강 상담

자연분만 vs 제왕절개 무엇이 더 이로우까

일반적으로 자연 분만이 산모와 아기에게 이롭다고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왜, 어떠한 면에서 좋다는 것일까? 또한 각 분만 방법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가?

우선 자연 분만이 산모에게 좋은 이유는 ▶출혈량이 적으며 ▶회복이 빠르고 ▶각종 감염의 위험이 적다는 것이다. 자연분만 시 출혈량은 약 250~300ml로 제왕절개에 비해 3분의 1가량 적다. 물론 과거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도중 사망하는 산모의 사례는 극히 적다. 하지만 여전히 제왕절개로 인한 사망 위험률은 자연분만보다 더 높다.

예를 들어 출혈이 멈추지 않는 과중성 혈관 내 응고가 발생하면 수혈을 하고 혈액 응고제를 투입 하더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방광이나 장의 손상, 각종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수술 후 회복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제왕절개에 비해, 자연분만은 질과 외음부가 찢어지는 열상이 생길 수는 있다. 다만 개복수술을 하지 않는 만큼 회복이 훨씬 빠르다. 비용적인 면에서도 자연분만은 제왕절개에 비해 약 3분의 1 저렴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가 갖는 건강상의 이점이다. 엄마의 뱃속에서 양수를 마시는 태아는 좁은 산도를 통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폐 속의 양수를 밀어내 숨을 쉴 수 있도록 준비한다. 바깥세상으로 나옴과 동시에 산소를 들이켜 순환이 되도록 한다.

제왕절개를 하면 이 과정이 생략되어, 간혹 호흡 곤란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자연분만에서는 태아가 산도를 빠져나오면서 엄마의 박테리아가 아기에게로 전달되어 면역력을 높인다. 제왕절개는 아기가 무균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박테리아에 노출되지 않아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김성호 산부인과 전문의 LA할리우드 차병원

떨다. 설사나 소화, 장, 천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제왕절개의 장점도 있다. 부분 마취로 허리부터 아래로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에, 출산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또한 수술이 시작된 뒤 약 35분에서 45분 내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

자연분만이 어렵고 제왕절개를 해야만 하는 산모들도 있다. 태반이 자궁 경부를 막고 있는 전치태반, 태반이 자궁 내에서 찢어진 경우, 산모의 골반에 비해 태아의 머리가 큰 경우, 머리가 위쪽을 향해 있는 역아,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태아가사, 산모가 성병이나 심장병 등의 질환을 갖고 있거나 허리를 다친 경우 등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미국 보건부(OASH)와 건강증진국(OPHP)의 건강정책인 Healthy People 2030은 자연분만을 독려한다. 불필요한 수술로 인한 산모들의 합병증과 감염 등 각종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저위험군 산모들의 제왕절개 비율 목표를 23.6%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모든 조건이 적합하여 자연분만으로 건강하게 출산하면 좋겠지만, 제왕절개가 꼭 필요한 상황과 환자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만을 위한 특정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산모와 태아의 상태 및 상황에 따라 분만 방법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리 상담

십대 자녀의 반항과 갈등

#십대 딸을 둔 40대 여성이 사춘기에 접어든 딸과의 갈등으로 너무 힘들다며 찾아왔다. 어려서 부터 반항기가 있었던 딸이 사춘기가 되고 코로나19팬데믹을 지나면서 더 예민해지고 따지고 대드는 게 심해졌고 학교성적도 떨어지고 학교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적대적 반항 장애라는 것을 봤는데 딸아이가 행동 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기사나 글을 접하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런 정신질환이 아닌지 물어오는 환자가 종종 있다. 앞서 언급한 적대적 반항 장애, 이전 칼럼에서 다룬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반항 장애, 분노폭발 장애, 충동조절 장애라는 제목으로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

먼저, 적대적 반항 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는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Disruptive, Impulsive, Control and Conduct Dysphoria)의 하위유형으로 행동 장애의 하나다. 증상에는 ▶자주 욕하고 화를 내며 ▶예민하고 쉽게 짜증을 내며 ▶때때로 크게 분노, 분개한다. ▶권위자(아동, 청소년에게 어른)와 자주 논쟁하고 ▶권위자 또는 어른의 요구나 규칙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며 ▶고의로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고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남의 사람 탓으로 돌리고 원망을 한다. 또 ▶지난 6개월 동안 최소 두 차례 악의에 차 있거나 앙심을 품는 등의 양상을 보이는데 이 중 4가지 이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적대적 반항 장애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이런 증상이 형제자매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에서 나타나야 하며 이들 증상이 진단에 부



문상웅 심리상담가(LCSW) 이웃케어클리닉

합한다고 해도 행동의 지속성 및 빈도가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구별해 다른 요인을 함께 고려한 뒤 진단하게 된다.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이 같은 행동 장애가 자신 또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며 이 때문에 학업, 직업, 사회 기능이 지장을 주면 적대적 반항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적대적 반항 장애는 방치하면 품행 장애나 다른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위의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적대적 반항 장애를 의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적대적 반항 장애로 보기 이전에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사춘기의 반항인지 구별해야 하고 우울함이나 불안, 트라우마 같은 그거저에 있는 증상, 신체적 컨디션, 사고 패턴 등 여러 사안, 상황을 종합해 고려, 판단해야 한다.

자녀가 반항심이 강하거나 사춘기에 반항하면 반항아,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다. 또 이를 고친다고 억박지르거나 엄격하게 규제한다. 그보다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많은 대화를 하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친구 같은 가까이 사이가 되도록 노력하며 자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대하는 게 아이의 행동 개선에 도움이 된다.

1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파묘 개봉 18일 만에 800만 돌파 '곡성' 제치며 역대 오컬트 1위 "장재현 감독, 이장 참여하며 공부 B급 장르를 현실과 엮어 대중화"

오컬트 영화 최초 천만 흥행작이 될까. 지난달 22일 개봉한 '파묘'가 개봉 18일 만에 800만 관객을 돌파했다. 687만 관객의 '곡성'(2016)을 제치고 역대 오컬트 흥행 1위에 올랐다. 10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날까지 '파묘' 누적 관객 수는 800만 명을 넘어섰다. 천만 영화 '범죄도시2' '서울의 봄'보다 흥행 속도가 빠르다.

기획·각본·연출을 맡은 장재현 감독은 '검은 사제들'(2014), '사바하'(2019) 등 오컬트 영화만 만들어왔다. '파묘'는 오컬트에 일제강점기 역사를 맞물렸다. 못바람(못자리에 탈이나 후손에 해가 가는 것)이 난 재미 한인 갑부 의뢰로 강원도 산골의 묘를 이장하려던 풍수사(최민식)·장의사(유해진)·무당(김고은·이도현) 등이 못자리에서 나온 '힘한 것'과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장 감독이 "마니아만 보는 장르 영화를 만들었는데 실수로 대중영화가 된 듯하다"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이 추세면 2월 개봉작으로는 첫 천만 영화가 된다. 970만 관객의 '검사외전'(2016)이 2월 개봉 최고 흥행작이다. '파묘'는 지난해 11월 개봉한 '서울의 봄'에 이은 비수기 흥행작이라 더 의미 있다.

'파묘' 투자·배급사 쇼박스 관계자는 "오컬트 장르가 젊은 관객층에 어필할 것으로 보고 겨울방학 말미로 개봉 시기를 정했다"고 전했다. 김형호 영화시장 분석가는 "'파묘'는 미스터리 공포이자, 일제강점기 소재의 '삼일절 영화'라며 "코로나19 이후 반으로 줄어든 연간 관객 1억명 시장에서 (타깃층이) 확실한 영화가 흥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예매 앱 관람평 중에는 "뜬금없는 9척 귀신이 스토리의 허리를 꿰었다"는



"마니아 영화 파묘 실수로 대중영화 됐다"

(장재현 감독)

한반도 모양 하늘을 담은 '파묘' 특별 포스터가 식민 잔재 소재와 맞물려 화제다. 일러스트레이터인 관객이 그린 팬아트에서 착안했다. [사진 쇼박스]

불만도 있지만, "공포 컨셉트 방 탈출 카페에 다녀온 느낌" "두 번 보니 지나쳤던 것이 눈에 들어온다" 등의 반응이 많다. 소셜미디어에선 '파묘' 패러디도 유행한다. '파+고양이(猫:묘)' 인증샷, 김고은·이도현의 불교 경문 문신 따라하기 등이다. 한반도 모양 하늘이 나오

는 특별 포스터는 팬 아트에서 따왔다. 오컬트 장르가 영화·드라마로 꾸준히 소비돼온 것도 관객층 확장에 한몫했다. 영화진흥위원회 '2023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포영화는 독립·예술영화 흥행 10위권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장르였다. 연상

호 감독이 각본을 쓴 tvN '방법'(2020)과 티빙 오리지널 '괴이'(2022), 김은희 작가·김태리 주연 SBS '악귀'(2023) 등 오컬트 드라마도 주목받았다. '검은 사제들'의 속편 격 영화 '검은 수녀들'을 제작하는 영화사집 이유진 대표는 "오컬트가 여전히 대중적 장르



장재현 감독은 지난달 '파묘' 언론시사회에서 "체험적 영화를 만들려 했다"고 밝혔다. [뉴스1]

는 아니지만, 장 감독이 한국 현실에 맞춰 이야기를 만드는 데 탁월했다"고 칭찬했다. 김형석 영화 저널리스트는 "'사바하' '파묘' 모두 익숙한 재미를 새로운 소재와 섞어낸 장르적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장 감독은 '파묘' 연출을 위해 장례지도사 자격증 공부도 했고, 이장에도 10여 차례 참여했다. 전직 대통령 장례를 도맡은 유재철 씨 등 장의사·풍수사·무속인 등도 취재했다. '부산행'(2016), '기생충'(2019)부터 '파묘'까지 특수분장만 20년간 해온 황효균 셀 대표는 "장 감독이 오컬트에 대해선 집요한 학구파다. 우리도 배우며 작업했다"고 말했다.

'파묘'는 지난달 베를린 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이어 오는 28일 개막하는 홍콩 국제영화제 갈라 부문에 초청됐다. 인도네시아에선 8일까지 누적 71만 관객을 동원했다. '기생충'을 제치고 역대 현지 개봉 한국영화 흥행 1위에 올랐다. 박신양이 죽은 딸의 심장에 깃든 악령과 사투하는 '사할', 마동석의 오컬트 액션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 김재중 주연 영화 '신사' 등 오컬트 신작도 뒤따른다.

공포·오컬트물이 각광받는 배경을, 지옥을 담은 현실에서 찾기도 한다. 영화평론가 강성률 관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는 "좀비 영화든 오컬트든 무한경쟁에 시달리는 청년 세대 심리를 메타포적으로 재현한 것"이라며 "'파묘'는 헤피엔딩이란 점에서 독특한데, 천만 관객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흥행 경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니엘정** 기자

"정성화의 콧지모도는 '연민'입니다. 관객들이 '나라도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싶어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콧지모도 콧지모도 역을 맡은 배우 정성화(49·사진)가 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라이브 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성화 표 콧지모도만의 매력은 깊은 감정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

저 굽은 등, 나라도 사랑해줄까... 정성화의 콧지모도는 연민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주연
(1802~1885)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1998년 프랑스에서 초연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15세기 파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콧지모도 콧지모도와 집시 여인 에스메랄

다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다. 한국어 공연은 6년 만으로, 지난 1월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막했다. 정성화는 양준모·윤형렬과 함께 콧지모도를 연기한다. 그는 콧지모도를 연기하기 위해 여러 연극을 했는데, 특히 "일그러진 얼굴에서 비롯된 어눌한 발

음과 발성, 굽은 자세로 노래를 계속 부르기 위한 근력 운동 등에 공을 들였다"고 했다. "첫 공연을 끝내고 리뷰를 보는데, '너무 칭찬한 콧지모도'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코미디언 출신 정성화는 2004년 뮤

지컬 배우로 변신했다. 그 후 20년간 뮤지컬 '영웅'의 안중근,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등을 거치며 배우의 입지를 굳혔다. 그의 다음 목표는 "한국형 뮤지컬 영화의 성공 공식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 관객들이 '왕가' 같은 뮤지컬 영화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 뮤지컬 영화는 흥행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좀 더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홍지유** 기자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척추교정, 물리치료, 한방, 침술 및 마사지 등 동·서양의 치료를 병행한 합리적 치료시스템으로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편안하게 치료받으세요~

환자분들이 오직 편안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보험처리, 서류작성** (변호사 선임) 등 복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
한 의사 (NCCAOM)

진료 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495 우재국 Shell 395
Little River Tnpk. 236
John Marz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Tel: (703) 354-8686

전화예약 바랍니다.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결국 이강인 뽑은 황선홍 “하나된 모습 보여주겠다”

태국과의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출전 선수 명단을 공개한 황선홍 축구대표팀 감독은 “보듬어 안고 화합해 앞으로 나갈 것”이라 말했다. [연합뉴스]

북중미월드컵 2차예선 명단 발표 축구계 안팎 여론 여전히 부정적 황 감독 ‘결자해지’ 성공법 선택 주민규 첫 발탁... 분위기 쇄신도

황선홍(56)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의 선택은 정면 돌파였다. 대표팀 동료들과 반목하며 물의를 빚은 미드필더 이강인(23·파리생제르맹)을 3월 A매치에도 변함없이 대표팀에 불러들였다. 황선홍 감독은 1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열리는 태국과의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21일 상암·26일 태국 방콕)에 나설 23명의 축구대표팀 엔트리를 공개했다. 23인 명단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는 역시 이강인이다. 그는 지난달 요르단과의 아시아전 4강전을 앞두고 돌출 행동으로 주장 손흥민(토트넘)을 비롯

한 여러 동료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선수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실이 국내·외 언론에 보도돼 한국 축구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이후 이강인이 직접 영국 런던으로 손흥민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성의를 보였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이강인을 계속 국가대표로 선발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26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 이강인 선발 찬성과 반대는 각각 46.9%와 40.7%로 팽팽히 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5%였다. 축구계 안팎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황 감독이 이강인을 대표팀에 발탁한 명분은 ‘결자해지’다. 직접 동료들과 팬들 앞에서 정식으로 머리 숙여 사죄할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대표팀 내부 분열 상황을 일단락짓겠다는 의도다. 성공법을 선택한 셈이다. 황선홍 감독은 명단 발표 후 “이강인과 소통하며 ‘대표팀 구성원들에게 직접 사과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대표팀 내 갈등이 두 선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표팀 모든 선수와 코칭스태프 등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태국과의 2연전을 통해 다시 하나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 감독은 이어 “이강인을 부르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위기를 피해갈 순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나중에 언제라도 이강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

다. (대표팀 발탁)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강인 및 손흥민 두 선수와 의사소통을 거쳤다.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은 운동장에서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강인 발탁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하는 게 황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의 남은 과제다. 축구대표팀 내부 갈등 사실이 보도된 이후 “대표팀 기강을 무너뜨리고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선수를 징계 없이 용서하는 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관련 기자회견 당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엄정한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강인에 대해서는) 소집을 안 하는 징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축구협회장이 언급한 ‘엄정한 조사’와 ‘징계’는 건너뛴 셈이 됐다. 황 감독은 대표팀 일부 멤버를 교체해 분위기



이강인



3차전 vs 태국
3월 21일 20시 서울 월드컵경기장

4차전 vs 태국
3월 26일 한국시간 21시30분
방콕 라자망갈라스타디움

황선홍호 어떤 선수들이 뽑혔나

FW 공격수

조규성(미트윌란) 주민규(울산HD)

MF 미드필더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이재성(마인츠) 홍현석(헨트) 황인범(츠르베나
즈베즈다) 정우영(슈투트가르트) 정호연(광주
FC) 박진섭(전북) 엄원상(울산) 백승호(버밍엄)

DF 수비수

김영재, 이명재, 설영우(이상 울산)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권경원(수원FC)
김진수(전북) 조유민(사르자) 김문환(알두하일)
GK 골키퍼
조현우(울산) 송범근(쇼난 벨라레) 이창근(대전)

자료: 대한축구협회

쇄신을 시도했다. 주민규(울산HD)를 비롯해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좀처럼 부름을 받지 못하던 선수들을 발탁했다. 미드필더 백승호(버밍엄시티), 측면수비수 김문환(알두하일), 중앙수비수 권경원(수원FC)과 조유민(사르자) 등이 태극마크를 다시 달았다. 올림픽 팀 핵심 멤버인 미드필더 정호연(광주 FC)도 A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축구대표팀은 오는 18일 소집해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태국과의 홈 경기에 대비한다. 경기를 마친 뒤 태국 방콕으로 건너가 26일 원정경기를 치른다. 송지훈 기자

레이커스, 미네소타도 잡았다

제임스·데이비스 56점 합작 밀워키전 승리 이어 2연승

미프로농구(NBA) LA 레이커스가 ‘원투 펀치’인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의 위력을 앞세워 난적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를 제압하고 2연승을 거뒀다. 레이커스는 10일 LA의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NBA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미네소타를 120-109로 물리쳤다. 이들 전 동부 콘퍼런스 상위권 팀인 밀워키 벅스를 꺾은 데 이어 서부 콘퍼런스 선두권의 미네소타도 잡은 레이커스는 시즌 36승 30패로 서부 9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2연패를 당한 미네소타는 서부 콘퍼런스 3위(44승 21패)에 자리했다. 이날 맵피스 그리즐리스를 꺾고 3연승으로 45승 19패가 된 선두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와는 1.5경기 차다. 제임스가 양팀 최다 득점인 29점에 어시스트 9개, 리바운드 8개를 기록하는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펼쳤고, 데이비스는 27점에 리바운드를 무려 25개나 견어내고 스틸 7개, 어시스트 5개, 블록 3개를 곁들이는 괴력을 뽐내며 승리를 합작했다. 데이비스의 25리바운드는 개인 시즌 최다, 스틸 7개는 커리어 최다 기록이다. 이들은 필두로 오스틴 리브스(19점 6리바운드),

하치무라 루이(15점), 디안젤로 러셀(13점 6 어시스트)까지 이날 레이커스에서 선발로 나선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이 좋지 않은 루디 고베르와 무릎 부상 중인 칼 앤서니타운스가 빠진 미네소타를 상대로 레이커스는 리바운드에서 56대 38로 우위를 점했다. 미네소타에선 앤서니 에드워즈가 25점 7리바운드 7어시스트, 나즈 리드가 25점 5리바운드로 분전했다. 전반을 마쳤을 때 레이커스가 69-68, 3쿼터가 끝났을 땐 미네소타가 92-91로 근소하게 앞서는 접전이 이어지다가 4쿼터 96-94에서 레이커스가 11점을 내리 뽑아내며 6분 57초를 남기고 107-94로 도망가며 승기를 잡았다.



르브론 제임스(23번)는 29득점으로 LA 레이커스의 2연승을 이끌었다. [로이터/USA투데이스포츠]

20대 초입의 청년들도 부러워 할 만큼 중장년층 여성과 남성들에게 세상사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는 성인전용 상품 LC Plaza, P.O. Box 2831, Garden Grove, CA 92842. 전세계 어디서나 1-213-210-9720 (상담 및 주문), 인터넷 주소: www.yyykkk.com (지불 방법 : 무통장 은행입금 (Bank of America에 직접 입금), 체크 또는 머니오더 송금, 현금 구매, 모든 Credit 카드, Debit 카드, Check 카드)

남성들의 원기회복과 정력 보강에 특효로 알려진 한방 보약재와 천연 생약재 발효 성분으로 구성된 무결점 부작용 천연 비아그라는, 미국 파izer사의 비아그라를 복용했을 때, 케미컬 성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문제가 전혀 없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으로서, 지난 26년간 이어져온 꾸준한 판매실적과, 고객들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100%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70 ~ 80대 남성도 20대 초입의 건강한 청년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5 캡슐 1 병 & 20 캡슐 1 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발기가 잘 안되는 경우
▶ 강직도가 충분치 못하거나 일찍 풀리는 경우
▶ 비아그라를 먹어도 전혀 효과 없는 분께 특효
▶ 내성이 전혀 없는 자연 치유력 증진 효과 보장
▶ 여성이 너무 좋아하는 최고 강직도와 지속성
여자가 생각할 때 1 캡슐만 복용하면 1 시간 경과 후에 여성의 영영이나 가슴을 쳐다만 봐도 아랫도리가 분기맹천하는 강력한 남성기 발기력 개선 효과가 1주일 가량 지속되게 해주는 보약.
#백인 여성과 일본 여성들의 성생활 동영상 DVD
#혼자여도 전혀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게 해주고, 혼자서 되려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고,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싱글 남녀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자위용품.

#69 전문가가 권장하는 남녀공용 사랑의 윤활유 『우먼센스 오르가즘 젼™』 \$58 (100여회 사용) 끈적임과 자극성 냄새와 색깔 맛이 전혀 없는 무색무취 무자극성 제품이므로 남녀 모두 상대방 모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여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애액과 흡사한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해주고, 남녀 모두에게 미칠 만큼 달달하고 감미로운 황홀한 질 환경을 제공해주며, 삽입하기 전에 서너 방울 바르고 하면 관계가 끝날 때까지 촉촉하게 미끈거리는 아들아들하고 보듬보듬한 환상적인 감촉을 제공하는 윤활 작용과 제품을 사용하면 할수록 여성의 성감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주며 평소보다 남성의 성욕이 왕성해지고 발기력이 월등하게 강해지며 여성기의 세균 감염을 방지해주는 위생 작용과 질에서 풍기는 콧냄새까지 청결하게 없애주는 기능성 윤활제 제품입니다.

61 향기로 후각을 자극하여 충동적으로 성욕을 느끼게 해주는 남녀공용 성욕 자극제 향수, 부부와 연인들의 황홀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만들어 주는 남녀공용 성생활 개선제 최음제 향수, 향기를 맡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뜨겁고 황홀한 욕정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달달한 매혹의 향기 최음제 향수 \$45 (90회 사용) 자신의 신체 부위에 일반 향수처럼 1~2차례 뿌리고만 있으면 처음보다 이성이라도 나에게 호감과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가장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G-Spot을 발달시켜줄 수, 단련시켜주는 천연 옥 질 속에 넣고만 있으면 여성 불감증과 오르가즘 장애 4주 만에 완성, 질 팔약근 수축운동과 여성 요실금 자가치료 \$75

10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끼우고만 있으면 절대로 시들지 않는 남성기 발기력 강화제 O 링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밀착시켜 끼우면 빼내기 전에는 절대로 시들지 않는 견고한 강직도 지속 효과와, 터질듯이 부풀어오르는 우람한 사이즈 확대효과, 도톰한 링 테두리 부위가 여성생식기를 미칠 만큼 즐겁게 비벼주고 문질러주는 지압 마사지 효과의 O 링

1시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가량 지속효과, 100% 천연 성분으로 구성된 자양강장제 개념의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一石九鳥(일석구조)의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남성 생식기능 개선제품



5 캡슐 1 병 & 20 캡슐 1 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① 신장과 간 기능 건강에 100% 확실한 효과 보장
② 늘상 피곤한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한 방에 퇴치
③ 만성 전립선비대증 근본 원인 치료 효과 보장
④ 70~80대 남성들도 규칙적이고 활기찬 성생활
⑤ 점점 양이 줄고 메달라가는 남성 호르몬 보충제
⑥ 막힌 혈관 청소와 고혈압 개선 근본 원인 치료제
⑦ 우람한 남성기 확대 효과와, 견고한 강직도 보장
⑧ 먹기만 하면 커지는 남성기 성장 발육 확대 효과
⑨ 남성 발기부전과 조루증에 확실한 효과 보장

당뇨병 환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게 해주며, 70~80대 남성도 나이와 무관하게 생각 날 때마다 발기력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즉효성 남성 발기제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 1 시간 전에 1캡슐만 복용하면 1주일 가량 지속되는 넘치는 정력에 보약효과 만점의 즉효성 남성기 발기제

#12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멧돼지 남성들의 성생활 필수품 오리지널 천연 낙타 속눈썹 링 (세척을 통해 만 연구적으로 사용) 말총처럼 까실까실한 환상적인 감촉과 실크 원단처럼 하늘거리는 보듬보듬한 환상적인 촉감이 실신했 만큼 감미롭고 달달하게 여성기 속살을 구석구석 섬세하게 쓸어주는 전설적인 성생활용품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싸움**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3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보험 사무실
직원모집

페어팩스에 있는
보험 사무실에서
오래동안 같이 일하실
직원을 찾습니다.

▶ 풀/파트타임 가능
▶ 영어 가능하신 분
▶ 보험 라이선스 소지자 환영
▶ 401k, 건강보험, PTO

www.uniwm.com
이메일
vaoffice.uni@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코웨이 DC 지점
직원모집

• 코웨이 코디/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종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메일: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종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구
703-543-2322
▶이메일: ceo@toptravelusa.com

탑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컨티티, 매릴랜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코웨이 코드 / 코닥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4대 보험 전액 지원
-자율적인 근무시간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
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로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키징/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스폰가능
ceo@hanmipost.com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
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종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필수
-1년 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 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 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멀에 위치한 시계 및 주얼리
리퍼어 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 풀 타임
571-633-0766 / fastfixusa@gmail.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종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hire13@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co.kr
josephleejtbc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매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 require 이종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하실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 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가능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페어팩스에 있는 내과 병원에서 메디칼
어시스턴트와 리셉션니스트 파트타임,
풀타임을 구합니다. 703-505-0204
mmaturimed@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종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MD Germantown 회사와 함께 성장해갈
사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풀/파트)
본사는 MD Germantown에 위치한
중형치과 기공소로 사세 확장을 위해 사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해갈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Accounting, Inventory, Order,
Customer Care 등 업무에 지장이 없으신분
*영어 회화에 문제가 없으신분
*풀/파트타임 가능 *경력자 우대 합니다.
이메일: confidential.hr@gmail.com
전화문의: 240-477-5683

덴탈 어시스턴트 / 프론트 데스크 구함
경력자 우대 초보자도 환영
p : 410-480-5234/ 지역 : 엘리컨티티

Fairfax Medical Center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 구인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월-토).
시간당 \$50-60 가능합니다.
이력서: gofrc@gmail.com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시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 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취업기회)
영주권 스폰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티어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슈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세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슈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슈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우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매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도 환영.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스프링필드(VA) 막창도둑 코린인 bbq
서버, 헤드서버, 매니저 구합니다.
443-953 1127

Breakfast 주중/주말, F/P(\$20+tips/hr)
server 6am-2pm DC, CUA metro 근처
703-785-8763

애난데일 토속촌에서 웨치레스 구함
703-333-3400

MD 포토맥 지역 뉴일식당
스키맨, 서버, 캐슈어 풀/파트타임 구함
703-405-7272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모집
*College Park Area, MD
-Shift Manager 교대근무관리자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 POS 지원/
Pricing Analyst/ 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
-사무보조: 이종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 301-333-2209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풀타임/파트타임 이발사 구합니다.
703-408-1119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트,
커미션을 원하시는 미용사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매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아난데일 헤어살(SUN'S HAIR)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니스트(풀, 파트타임 가능)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시지 남겨주세요)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종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세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 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jumbo.food@gmail.com
전화: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구인

매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 (Cash Only)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중앙일보**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렌트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세탁/엘트레이션>

스테포드 지역 픽업스토어 수선&캐쉬어 Tel. 703-628-9100

픽업스토어에서 바느질 하실분(파타임) 엘리콧시티 지역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엘트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분 파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타임 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첸들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마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휘경력) -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 하실분 703-798-7270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Valentine's Day Week (2/13 and 2/14) 동안 일하실 구합니다. 이메일 : joymiah0629@gmail.com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로드. 202-271-2726

버크 태권도 사범/보조사범(파/풀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 (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씨터 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기 픽업가능한분, 성실한분 213- 839-3735

밤10시부터 청소 하실분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버지니아 센터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모실분. 요리, 목욕, 밤 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입,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가능자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첸탈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밤청소 하실분. 페어팩스, 스프링필드 지역 703-980-1917

빌딩청소 하실분 파타임 남녀1명 장소 칼리지파크 MD 경험자우대 703-725-1233

고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달리버리 하실분을 모집합니다. 고정급 있음 연락처: 703-505-5211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세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 (화장실 포함). 전체3층, 방4+ 화장실 3.5. ▶703-244-3453

콜롬비아 싱글홈 월\$3,800 방5, 화장, 2 리버힐 학교 410-599-1800 문자요망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잔디관리, 전체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장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장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마트 앞, 월 \$3,400 방3, 화장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장4개, 2가가라지. \$2,850 703-762-6759

클리프톤, 마트 3분, 싱글홈 렌트. 방4, 화장4, 전층 리모델. \$3,900 (12/10 이사가능) 571-215-3070(문자요망)

센터빌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세입자 구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장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장2.5, 전체 세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4 화장3. 소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장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2, 반화장실2 차고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콘도 렌트>

Manassas 콘도 \$1,600 / 즉시 입주 가능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세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0s.(넓은 size) Costco 가까운 동네 ▶703-477-3114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페어팩스 웨그망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 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매나사스 H-mart 근처 타운홈 방 렌트 walkout 1층 전체, 밝고 깨끗한 큰방, 주방(간단한 취사), 욕실, 세탁실, 주차편리, 별도 출입문, 인터넷, 유모, 비흡연자 703-400-4520

구독: 703-281-9660,1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별도. 금연차, 그랜마트 6분 롯데 11분, 오래계실분 702-622-8853

애난데일 H-mart 옆 방1 세놓음 인터넷, 가구일체, 취사가능, 유모 \$800 직장 다니는 남자 환영. 3월말 입주 703-975-0123

MD 렌함지역 조용하며 교통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가능. 방세저렴, 큰방, 1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H-mart 뒤 콘도. 화장실 딸린 큰방 렌트 703-300-8669

방 하나 렌트. 주차장 충분, 출입문 따로. 571-237-3411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 렌트 욕실 가구 완비 \$800 여 학생 직장인 703- 981-7615 (문자)

애난데일 싱글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방+거실+키친+Full Bath, 주차 703-606-0700

알렉산드리아 킹스타운 콘도 렌트 \$750 방1, 취사세탁가능, 남자분 환영 703-403-7757

애난데일 한강식당 뒤 타운하우스, 지하전체 워크아웃, and separate entrance. NO smokers. 703-354-3476

애난데일 지하실 방1, 화장실1 703-887-5173

조용한 로던(페어팩스) 주택가 1층 같은 워크아웃 지하전체(방3개) 넓은 리빙룸, 인터넷, 유모, 냉장고, 세탁기, 주방시설, 출입문 별도 571-488-5860

애난데일 K마트 뒤 싱글 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 넉넉 703-965-2343

애난데일 방1, 화장실1, 애난데일 도서관 옆, 잠만 주무실 직장인 / \$600 703-350-1986

페어팩스 50번도로와 66도로사이 비엔나역 근처 방 렌트, 남자 직장인 환영 571- 530-7322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방1개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룸 메이트 구함 애난데일 (교통편리) 잠만 자실분(남자), 인터넷 및 가구 완비 703-560-6424

Fairfax Burke H-Mart 10분거리 유모,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문자 바람 703-678-7833

NOVA, GMU Burke H-Mart 10분거리 유모, 취사, 인터넷, 방1 \$600 방2개 \$1000, 여자분 한함 문자 바람 571-214-0188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FOR SALE

Air Compressor 20 HP (22 volt) **\$1,800**

Air Compressor 5 HP (22 volt) **\$1,000**

* Air Compressor는 현재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58-6384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달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이노바병원 근처 단독주택 Walk-out 지하 전체 (입구 별도) 방2, 욕실2, 거실, 취사 가능 \$2,000(전기, 가스, 물, 인터넷포함)
문의: 703-975-4989 (문자만 주세요)

애난데일 방 세 놓음 703-966-9597

MD 실버스프링 싱글 홈 2층
마스터베드룸 쓰실분, 가구·인터넷 완비,
한아름 10분거리, 넓고 조용함
240-543-6427

애난데일 방 렌트. 방에 욕실, 키친, 침대,
책상, 냉장고 완비, 개인 주차자리도 있음.
571-232-6052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 (Message 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위쪽 고급근도의
사무실 렌트, Wifi 제공
703-835-7404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싱글/타운/콘도 매매〉

애난데일 콘도 \$200,000
방1, 화1, 745s.f., 계단없는 1층.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 넓은 리빙룸, New Siding
Door. 풀워치 식당 옆 동네, 교통편리.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250,000
방2, 화장실1, 리모델한 콘도, 938s.f.
넓은 리빙룸, 남향 밝은집, 나무마루, 새부엌,
새화장실, Elevator, New Windows,
New HV/AC, H-Mart 근처
▶703-477-3114

맥클린 콘도 \$352,000
방1, 화장실1. 962s.f. Many Upgrades,
New Appliances, New HV/AC,
Tyson's Corner 가까이, 밝고 환한 콘도.
Washer & Dryer.
▶703-477-3114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 (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부동산/상업용 매매〉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매릴랜드 로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Sale Price: \$290,000
·Weekly's sales: \$6300. (평균)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571-421-0863

컨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975-7718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엿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2400/SF
1.2층, 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 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션 가능한 분, 세탁소 오토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료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애난데일 마트인 한중식 8만불 메세지주세요.
703-424-6451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썸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델트 C
· 시간: 일요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천 2분거
리), MD 타주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주 1회 90분 수업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새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시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중고품/기타 매매〉

골프채 판매
- 드라이버 9.5도 315cc
- 아연 닉센트 4—9 S P번까지 8개
- 던랍 (스페인제) 3—9 PS 7개
- 요넥스 6—9 PN 6개
240-475-4166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시점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죽 소파 3명
\$200, 등산 배낭 신발, 스탁,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 등등
703-597-8909

골프채 아이언 샷 Surpass 3—9번까지 7채
NICKENT 4—9, P, S 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 삽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2012 Hyundai Santa Fe 6 Cylinder
SUV Silver (현대산타페 은색) 82,000 mile
Good condition \$8,500
703-350-1986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냉장고, TV 및 여러 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Used 정품 혼마드 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베레스 4 스타, Regular, 9.5도
아이언셋: 베레스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주키 미싱 dll 8700 세탁소용
햄 미싱 USA, 4인용식탁 매매
240-475-4166

혼마 남성용 골프채
- 2 스타(02) 아이언 7pec
- 3 스타(03) 드라이버 9.5" 우드, 유틸리티
- 4 스타(08) 드라이버 / 3번 우드
- 4 스타(07) 5번 우드
- 4 스타(07) 아이언 8pec
410-913-8215(문자 주세요)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 무료견적
▶703-395-0050

생활안내 703-281-9660,1(문자)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 서비스
▶문의: 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 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익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인테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캐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
구 및 타일 플로우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밀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적, 확실한 민중,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는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퍼어, 핸드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징,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임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람 들판 잔디 깎기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 귀국 이사 전문
신용 저렴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타주이사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해외이사 ▶ 100% 자체보험으로
시내이사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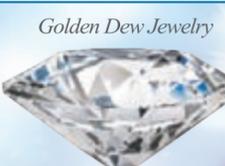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마이클 장

NMSI Inc. NMLS #201332

- ▶ 주택용자
- ▶ 상업용자
- ▶ 재정상담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Kara: Isn't your birthday coming up?
카라: 너 생일이 곧 돌아오지 않니?

Tammy: Don't remind me.
태미: 상기시키지 마.

Kara: It's the big four-o isn't it?
카라: 장장 40살이야 안그래?

Tammy: Why do you always remember my birthday? I can't keep track of yours.

태미: 넌 왜 꼭 내 생일을 기억하니? 난 네 생일을 기억못하는데.

Kara: You're my friend. Your birthday is important to me.

카라: 넌 내 친구잖아. 네 생일이 나한테는 중요해.

Tammy: I don't believe that for a second.
태미: 난 그거 못믿어.

Kara: How can you say that?

카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Tammy: You can't remember what you're supposed to do tomorrow. Your memory isn't that good.

keep track of (somebody) ; ~에 대해 관심갖고 보다, 기억해 주시하다

(Kara and Tammy are having coffee...)

(카라와 태미가 커피를 마시며~)

기억할만한 표현

▶ (something) is coming up: ~가 곧 열릴 것이다 돌아오다

"Spring will be coming up soon." (곧 봄이 올 겁니다.)

▶ the big four-o: 기다리던 장장 40세 생일

(혹은 30 60 등 0으로 끝나는 생일을 맞을 때 쓰인다)

"When I reach the big four-o I'm going to have a big party."

(40세 생일을 맞으면 전 큰 잔치를 열 겁니다.)

태미: 넌 내일 네가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애잖아. 네 기억력이 별로 안좋잖아.

Kara: Okay okay. You know me too well. My mother's birthday is on the same day.

카라: 알았어 알았어. 넌 날 너무 잘 알아. 우리 엄마 생일이 같은 날이야.

Tammy: I got the feeling that it was something like that.

태미: 그 비슷한 걸 거라고 생각은 했어.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가로열쇠

(1)금액을 밝히지 않고 봉투에 넣어서 주는 돈 (3)U자 모양으로 구부러 만든 자석. 양극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력이 오래 보존된다 (5)설사할 때 나오는, 물기가 많은 묽은 똥 (7)가짜 머리 (9)나무나 바위틈 등 산이나 들에서 채집한 야생 벌꿀. 꿀 가운데 제일 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매우 더디어서 일 따위가 잘 진척되지 아니함 (13)남녀 간에 교접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 (15)여러 사람이 한데 집 단적으로 묶는 곳 (16)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일. 중신 (17)열린 명태 (18)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매마른 땅 (20)바다 밑에 나뭇가지 모양의 균체를 이룬다. 가공하여 장식물을 만드는데, 예로부터 철보의 하나로 여겨 왔다 (22)병이 뻣속 깊이 들어 깊고 중함. □□□□ (24)역세고 질긴 근육. 성질이나 행동이 끈기 있고 질긴 사람. 농부들은 계속된 가뭄으로 ~이 풀렸다 (26)지집질을 할 때에 쓰는 무쇠로 만든 그릇 (28)사람의 몸에서 머리 위의 부분 (30)정성스럽게 하는 대접. □□□□ (31)참깨를 볶아 압착해 짜내면 이것이 나오죠

세로열쇠

(1)지구상의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하다. 다이아몬드 (2)예전에,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리던 물품 (3)연을 띄울 때에, 연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연을 잡고 있다가 놓는 사람. □□□□ (4)불교의 개조 (6)무엇을 표시하거나 적어서 붙이는 종이쪽지 (8)수력이나 화력, 원자력, 조력, 풍력, 지열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일으키죠 (10)새싹이 파랗게 돌아나는 봄철.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의 짧은 나이 (12)작은 물건도 많이 모이면 큰 것이 됨. 티끌(진) 모아 태산 (14)그림의 띠.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음 (18)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지키는 사람 (19)살가죽(피)과 뼈가 맞붙을 정도로 몹시 마름. ~한 아프리카 아기의 사진을 보면 정말 안쓰럽다 (21)잡쌀이나 말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설탕이 들어 있는 때.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 중 하나 (23)바닥이 얇고 평평한, 사기로 만든 네모난 그릇 (25)남이 시킨 일이나 부탁한 일을 대신 하여 줌 (27)바꾸거나 어길 수 없는 중요한 법칙 (29)단체나 부류에 새로 참가하거나 들어온 사람. 새내기

스도쿠

		5			4		8	
		8	2		6			7
1			9				5	6
			6	2	8			
	3			1	9	6		
4	2	6				8		1
6				9		5	4	
				4	2	3		
		2	3	6				8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7	1	5	9	3	2	4	6
6	9	3	2	4	8	1	5	7
2	4	5	1	6	7	3	8	9
1	6	8	7	3	5	9	2	4
5	2	9	6	1	4	7	3	8
4	3	7	8	2	9	6	1	5
9	5	2	3	8	6	4	7	1
7	1	4	9	5	2	8	6	3
3	8	6	4	7	1	5	9	2

① 워싱턴 중영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_____ EXP. DATE: / month year CVS: _____	카드 뒷면 3자리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_____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기타 지역

매매

Hybrid Battery

Recondition Shop
 Relocation 가능
 쉬운운영, 무경험자 가능
 San Jose 지역, 가 55만
 (714)552-5714

스시/일본국수 식당

변화한 사풍물안, 4000SF
 BBQ와 데리야기 시설완비
 전채로 모델링 트레이서티 워싱턴주
 가격 23만 (네고가능)
 기술전수 (206)499-0507

Casino All Auto Program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가능한
 간편한 프로그램
 고정 고수익
 (702)773-2249

ASK미국 무료상담
 ask.koreadaily.com ASK미국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ASK미국에서 유용한 전문가를 만나세요!
 ASK미국문의: 213-368-2525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용자 간단하고 빠른 용자
Line of credit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기계장비론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용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SBA 7(a) 용자 10년 상환
기계장비 담보 용자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레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바이오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로 살매
 Up to 40% 할인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흡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전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뱀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 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평약 산삼음유단 도인력사관 50%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2024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 봄학기 개강 3월 19일

본교 지원시 특전

-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92CHICKENUSA.COM

92 Chicken KOREAN STYLE

치킨, 핫도그, 떡볶이, 소스, 장벼박스, 도매, 미국전지역

창업주 모집!!!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업종을 변경하고 싶은 창업주를 모집합니다.

✓가맹비 없음!!!!
 ✓로열티 3년 없음!!!!

식당자리 구함 / 부동산 환영
 현 90개 매장 오픈 현황중!
 문의하시면 컨설팅 해드립니다.
 E2비자 가능합니다.

92 K-CORN DOG

문의: 770-769-7575
 다양한 노하우로 성공을 만들어 드립니다.

미전역 좋은자리 찾습니다

MD, DC, VA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